

Vol.145 2017 May / June

Special theme

방심할 수 없는 소아청소년 응급질환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활기찬 계절,
사랑으로 한가득
채워가세요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현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 경 현



한달음에 성큼 다가온 봄이 절정에 이르고, 어느덧 한낮에는 때아닌 뜨겁게 내리쬐는 햇살 덕분에 이따금 계절을 헛갈리게 합니다. 상쾌한 봄과 청명한 여름의 경계에 서 있는 듯한 이 멋진 계절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5+6월호에서는 지난호부터 시작된 새로운 스페셜 테마 ‘24시간 불 밝힌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질환 치료에 강하다!’의 두 번째 기획을 다룹니다. 다각도로 살펴 본 성인 복통 질환과 관련된 내용에 이어 방심할 수 없는 소아청소년의 응급질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을 조금 더 세심하게 지킬 수 있도록 친절한 지침을 담았습니다. 또한 한양 토픽에서는 2016년 12월 개소한 한양대학교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간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 중심의 한 단계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양대학교병원은 환자와 환자 가족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을 위해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은 개원 이래 꾸준히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서의 의무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환자와 더 가까워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비롯 올해 역시 변함없이 진행되는 의료봉사활동 등을 통해 여러분의 곁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계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Vol.145 2017 May / June

24시간 불 밝힌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질환 치료에 강하다! ②

방심할 수 없는 소아청소년 응급질환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Children are not small adult).’라는 말은 소아청소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이 책임지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응급 환자 중에서도 소아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세심한 관찰과 진료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방심할 수 없는 소아청소년의 응급질환에 대해 조금 더 들어가 보았습니다.

Contents

- 02 **즐거운 편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방소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 08 **Love, Life** 한양대학교병원 의료봉사활동 현장

- 14 **Special theme ①** 신생아 응급질환, 철저한 관리로 막을 수 있다
- 16 **Special theme ②** 소아에게 발생하는 소화기 응급질환
- 18 **Special theme ③** 응급수술이 필요한 소아외과 질환

- 20 **Hanyang Topic** 한양대학교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24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의 이명
- 26 **베스트 파트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협력병원 남양주한양병원
- 28 **Dr. Opera**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탈출>
- 30 **Dr. Movie** YOLO로부터 배우는 삶의 태도
- 32 **예술과 의학의 만남** 앙리 마티스의 ‘대장암’
- 34 **고마운 당신에게** 김연환 성형외과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 36 **오늘의 건강강좌** 입병의 진단과 치료
- 37 **Hanyang News** 소아청소년과 개원의 연수강좌 개최 외
- 40 **언론 속 한양인**
- 42 **발전기금**
- 46 **한양캘린더**
- 47 **외래 진료 시간표**



발행처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발행일** 2017년 5월 1일 통권 145호
발행인 김경현 **주소**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대표전화** 02-2290-8114
Homepage www.hyumc.com **기획** 대외홍보팀 02-2290-9532~6
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에서 펴내는 격월간 매거진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편물 수령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의 '喜怒哀樂'
의사로 살아가는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회복의 완주를 동행하는 페이스 메이커

방소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평생 낫지 않는 병을 안고 사는 고통은 어떤 것일까. 당사자가 아니라면 함부로 그 고통을 짐작할 수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류마티스질환 역시 완벽한 치료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수시로 찾아오는 아픔을 하루하루 견디는 환자들을 위해, 방소영 교수는 처방전 외에도 따뜻한 말 한마디의 배려를 잊지 않는다. 진료실에서 만난 의사의 다독임이 생각보다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까닭이다. 글: 정라희 사진: 김지원





밝혀지지 않은 비밀을 찾아서

한양대학교의료원 류마티스내과는 전국적으로도 그 명성이 자자한 곳이다. 방소영 교수 역시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 잘 알려진 배상철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장 밑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제 방소영 교수는 배상철 병원장,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혜순 교수와 함께 류마티스질환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류마티스관절염과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같은 류마티스질환은 다양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연관된 자가면역 질환으로 수많은 환자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아직도 명확한 발병 원인과 기전 그리고 치료방법은 알려지지 않았다. 방소영 교수는 두 스승의 뒤를 잇는 젊은 의사이자, 의학자로 여전히 미지의 영역에 남아 있는 류마티스질환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에는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저널인 <Nature>지에 공동 연구 결과를 게재하는 성과도 났다. 이 연구는 류마티스관절염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새로운 유전자와 발병 기전을 제시한 것을 넘어, 새로운 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제 표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계의 반향을 일으켰다. 유전학 연구를 임상에 응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에는 대규모 루푸스 코호트를 기반으로 3,250명의 유전역학 분석을 통해 루푸스의 발병과 자가항체 생성의 원인과 유전변이를 규명하는 연구결과를 류마티스질환 최고 권위자인

<Arthritis and Rheumatology>에 발표하기도 했다.

“류마티스질환은 만성적인 경과를 보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많은 약이 개발되어 있지만, 아직도 병을 완전히 조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절 가능한 위험 인자를 사전에 파악해 제거하거나 피하면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내 연구는 각각의 질환에 따른 기본적인 임상 역학과 유전 역학 연구는 다소 미진한 상황이라 아쉬움이 커요.”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방소영 교수는 수많은 환자를 만나는 진료 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학회에서도 방 교수는 ‘젊은 연구자’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류마티스학회의 국제 젊은 연구자상을 세 차례 수상(2009, 2011, 2014)했고, 미국류마티스학회 우수포스터상(2009), 대한류마티스학회 우수연구상(2010)과 우수포스터상(2011)도 받은 바 있다. 다양한 국책 사업에 참여하며 국내의 척박한 연구 현실을 타개하려는 노력도 병행 중이다. 지난 2016년 12월까지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유전체 빅데이터 정보 통합을 위한 류마티스관절염 예후 및 약물 반응 예측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실무 담당자로 참여했으며, 현재는 보건산업진흥원의 ‘나노감센서를 이용한 류마티스관절염 다중 바이오마커의 고감도 체외진단 기술개발 및 임상 사용화’ 국책사업에 실무 담당자로 활동하고 있다.

의사가 된 공학도

방소영 교수의 이력에는 특이사항이 하나 있다. 공학도에서 의사로 진로를 변경한 다소 독특한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방소영 교수가 처음 선택했던 진로는 정밀기계공학이었다. 해당 학과에 8년 만에 입학한 홍일점이었던 방 교수는 당시 의공학에 관심이 컸다. 의공학을 제대로 하려면 의학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가 의학을 전공했다. 그렇게 시작한 의학 공부는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또 다른 적성을 알게 했다.

“의학 공부를 하면서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연구실에서만 하는 연구는 저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분들이 건강을 되찾고 호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기쁨과 보람으로 다가왔거든요.”

한양대학교병원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10년 3월부터다. 한양대

방소영 교수는 두 스승의 뒤를 잇는 젊은 의사이자, 의학자로 여전히 미지의 영역에 남아 있는 류마티스질환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에는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저널인 <Nature>지에 공동 연구 결과를 게재하는 성과도 났다.

학교병원에서 전임의 생활을 마치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류마티스내과 임상조교수로 부임하면서 시작한 구리병원 생활. 올해 3월에 부교수가 되면서, 방소영 교수의 책임감은 더욱 커졌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교사인 어머니를 따라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대학병원의 의무 중에도 ‘교육’이 있는 만큼 어떤 면에서는 어릴 적 꿈을 이룬 셈이죠.” 배상철 교수나 이혜순 교수가 그녀에게 훌륭한 롤모델이 되어 주었듯, 방소영 교수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사실, 방소영 교수는 아이 셋을 키우며 남다른 연구 실적까지 내고 있는 이른바 ‘슈퍼 맘’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방 교수는 특유의 끈기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둘 다 잘해보고 싶다는 바람을 털어놓는다. “제 위에 계신 이혜순 교수님이 교수이자 엄마로서의 삶을 잘 이해해주셨어요. 저도 다른 후배들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아이 셋의 엄마라는 사실은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의 사정과

마음을 이해하는 폭을 한결 더 넓게 했다. 한번은 신경계 이상으로 사지가 마비된 루푸스 환자가 자신의 아이를 안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을 토로한 적이 있다. 아직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엄마에게 밥을 먹여주는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위독했던 환자가 재활치료를 시작하고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 깊이 감사가 흘러나온다.

완치 희망 밝히는 따뜻한 열정

수시로 침범하는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은 여러모로 예민해져 있을 때가 많다. 완치의 희망이 없다는 사실도 환자들의 기운을 빠지게 하는 요소다. 류마티스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의사는 어떤 면에서 환자의 기나긴 치료 여정을 동행하는 페이스메이커다. 설령 그 목적지가 완치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여정을 한결 편안하게 걸어가는 것도 분명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류마티스질환은 만성질환이기는 하지만, 적절한 약제를 사용하면 통증을 조절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도 무리 없이 복귀할 수 있습니다. 힘든 순간이 와도 좌절하지 말고 의사와 상의해서 치료를 단계적으로 잘 진행하면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어요.” 방소영 교수의 얼굴을 가득 채운 미소도 통증으로 지친 환자들을 보듬는 그만의 격려 방식이다.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약은 처방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의사는 만나기 쉽지 않다. 따스한 말 한마디로 환자들의 마음을 위로해온 방소영 교수는 의사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인 연구에도 더욱 집중할 것이다. 언젠가는 완치라는 두 글자가 류마티스질환에도 전해지기를 희망하면서 말이다. 🌟



19년을 이어온 경청과 공감의 나눔

한양대학교병원 의료봉사활동 현장

봄의 시작을 알리는 벚꽃이 만발하던 4월의 어느 날, 한양대학교병원 의료진이 성동구에 위치한 성수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았다. 성동구보건소와 협력하여 1998년부터 19년째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한양대학교병원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설립 이념에 따라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에 더 큰 의미를 두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한다. 글. 황원희 사진. 이승현



지역주민을 위한 2017년도 첫 번째 의료봉사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봉사를 진행하는 한양대학교병원이 지난 4월 5일 성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7년도 첫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내과 태기연 전공의, 가정의학과 정영아 전공의, 정형외과 박상훈 전공의, 재활의학과 나용재 전공의, 안과 황선진 전공의, 신경과 김용성 전공의, 이비인후과 김민송 전공의 등 총 7개 과목의 의료진과 간호국 남태이 간호사, 약국 박소현 약사, 소현주 서무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김명희 간호사, 고혜민 간호사, 영상의학과 황승연 방사선사가 주축이 된 이번 의료봉사는 성동구보건소 간호사분들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엘로자켓 프로그램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며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다. 이른 아침부터 내린 봄비에도 불구하고 진료실 앞은 진료를 받기 위해 모인 지역주민들로 가득했다. 오후 두

시 반이 되자 지역주민들은 대기 순서대로 진료실에 입장해 간단한 검사와 접수 절차를 거쳤다. 성동구보건소 간호사분들이 지역주민과 일대일로 마주해 혈압과 당뇨 수치를 체크했고, 증상에 따라 진료과목을 배정해주었다.

“보통 두통과 손 떨림은 신경과, 기침과 가래는 이비인후과,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과 심장질환은 내과, 무릎 통증은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증상을 듣고 가장 적합한 진료과목을 알려드리는데 필요에 따라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배정받기도 해요. 무료진료이기도 하고, 한 번에 여러 진료과목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요.”

성동구보건소 간호사분들과 함께 검사를 진행하고, 증상에 따라 적절한 진료과목을 제시하는 한양대학교병원 심장내과 병동 남태이 간호사는 복합적인 증상을 가진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진료과목을 한 번에 만날 수 있어 만족해한다고 덧붙였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신경과를 많이 찾아요. 자신의 상태가 위험한 수준인지 알고 싶어 하죠. 현장에서 세부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특별한 처치를 해드릴 순 없지만, 어떤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길은 제시해줄 수 있어요. 대부분은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이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의 힘

“6년 전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눈물이 많이 나오고, 눈도 부시고 그래요. 요즘은 눈이 침침하기까지 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 한 분이 안과를 찾았다. 몇 년 전 받은 백내장 수술 이후 눈 건강이 걱정된다는 이야기였다. 혹여 눈에 이상이 생기진 않았을까 걱정이 가득한 할머니에게 안과 황선진 전공의는 그녀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고는 친손자처럼 친절하게 상담을 이어갔다.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밝은 빛이 더 많이 들어가서 눈이 부실 수 있어요. 눈이 침침한 건 눈꺼풀이 내려와서 그래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냥 놔두어도 상관은 없지만, 많이 불편하시면 간단한 수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자신의 건강 상태가 궁금한 지역주민들은 의료봉사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진료 시간 내내 대기 의자는 진료를 기다리는 지역주민들로 가득 채워졌고, 진료는 쉴 틈 없이 이어졌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신경과를 많이 찾아요.

자신의 상태가 위험한 수준인지 알고 싶어 하죠. 현장에서 세부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특별한 처치를 해드릴 순 없지만, 어떤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길은 제시해줄 수 있어요. 대부분은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이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신경과 김용성 전공의는 신경과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진료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작은 위안을 얻고, 때로는 병원을 방문해야 할 확실한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년간 이어진 사랑의 실천

한양대학교병원 의료진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의료봉사는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는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이곳에 특화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냈다. 접수와 간단한 검사를 통해 증상을 파악하고, 각각의 진료과목에서 진료 상담을 받은 지역주민은 진료실 출구 쪽에 마련된 약국에서 약 처방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60대 이상의 어르신이 대부분이다 보니 진통제와 근육

Mini Interview

황선진
한양대학교병원 안과 전공의



“이번이 다섯 번째 의료봉사 참가네요. 안과 특성상 많은 검사가 필요한데 어르신들과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물론 의료상의 치료를 해주면 더 좋겠지만, 의료 서비스만 가지고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의료봉사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환자 안내를 하는 것도 다 포함돼요. 친절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 위로가 되어주는 것에 집중하는 일이에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자체로 봉사의 의미는 채워지거든요.”

김순덕
성동구 지역주민



“3개월 전에 동네 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심장 크기가 커졌다고 했어요. 계속 내버려 두다가 오늘 이곳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는데 심장 검사를 받아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조만간 한양대학교병원을 방문해서 검사하려고 해요. 두려움이 커서 병원 가는 걸 꺼렸었는데 오늘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무서워하기보다는 세부적인 검사를 받고 빨리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완제 처방이 가장 많고, 파스와 인공 눈물 등이 그 다음 순으로 이어진다. “진료과목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 드물잖아요. 이곳에서는 무료진료이면서도 다양한 진료과목을 만날 수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오늘은 비가 오는데도 80여 명의 지역주민이 이곳을 방문했어요. 올해 첫 의료봉사였는데 앞으로 예정된 진료도 많이 찾아주실 것 같아요.” 성동구보건소 질병예방과 이현선 선생님은 한양대학교병원과 성동구보건소 의료진의 협력으로 완성된 의료봉사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의료봉사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한양대학교병원은 1998년 10월 26일 성동구청의 요청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의료봉사를 시작하며 지금까지 의료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사랑의 실천은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게 비춰주는 한양대학교병원의 주요 활동으로 현재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3회씩 총 6회에 걸쳐, 성동구 소재 복지관 중 성수종합사회복지관, 성동노인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을 순회하며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19년간 이어진 한양대학교병원의 의

료봉사는 2016년을 기준으로 1,213명의 의료진이 총 17,599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그 이상의 의미로 이어지고 있다. 경청과 공감의 나눔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제시하며 무럭무럭 성장한다. 🌱

2017년 한양대학교병원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봉사 일정

4월 5일(수)	성수종합사회복지관
5월 17일(수)	성동노인종합사회복지관
6월 13일(화)	옥수종합사회복지관
7월 5일(수)	성수종합사회복지관
9월 6일(수)	성동노인종합사회복지관
10월 25일(수)	옥수종합사회복지관

Special theme

24시간 불 밝힌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질환 치료에 강하다! ②

방심할 수 없는 소아청소년 응급질환



영아

1세 미만

- 주산기 질환
- 호흡기 질환
- 감염성 열 질환
- 설사 관련 질환
- 선천성 기형

- 열
- 감염성 열 질환
- 하부 호흡기 질환
- 설사 관련 질환
- 면역 결핍 바이러스 질환

1~4세

연령별 호발 질환

5~9세

- 설사 관련 질환
- 감염성 열 질환
- 뇌수막염
- 하부 호흡기 질환
- 교통사고

소아 1~19세

10~14세

15~19세

- 하부 호흡기 질환
- 교통사고
- 익수
- 자살
- 타살

- 하부 호흡기 질환
- 감염성 열 질환
- 교통사고
- 뇌수막염
- 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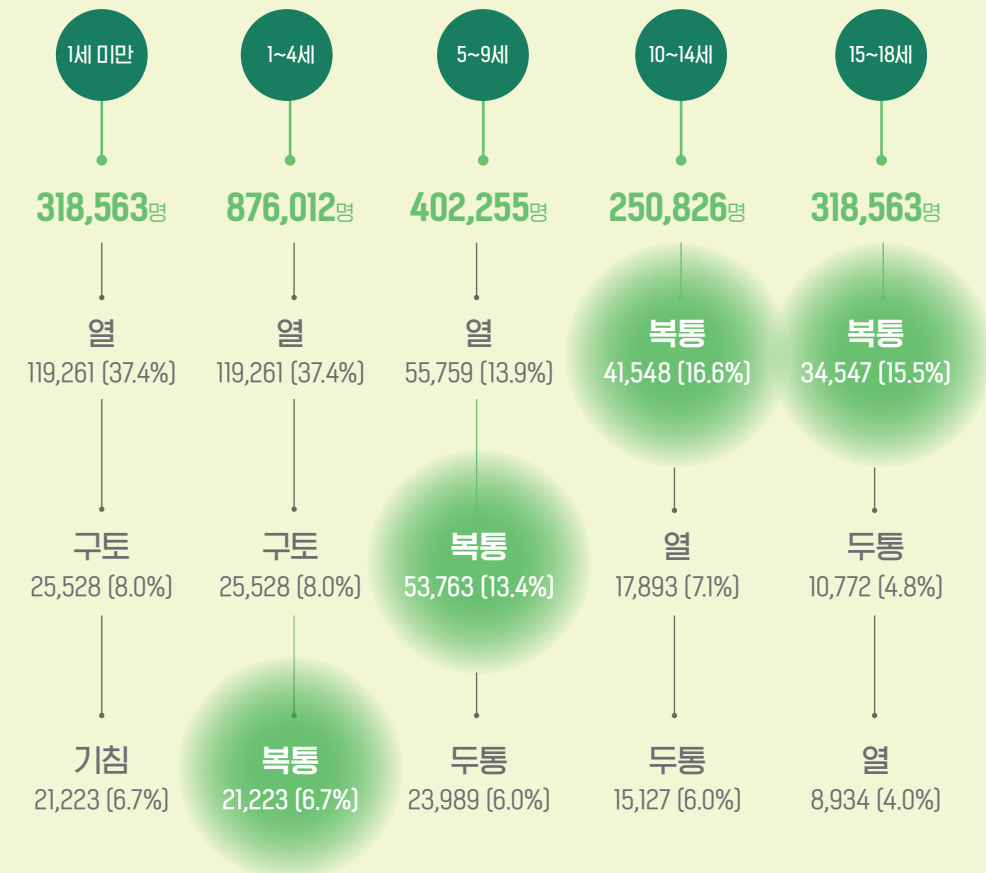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Children are not small adult)'라는 말은 소아청소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이 책임지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응급 환자 중에서도 소아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세심한 관찰과 진료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소아청소년의 사망을 유발하는 중증응급질환에는 주산기 질환/기형/의도하지 않은 교통사고 손상/중독들도 흔히 발생하며, 아동학대로 인해서도 종종 내원하고 있다.

글 **오재훈**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124개의 응급실이 참여한 국가응급의료정보망 통계 자료를 이용한 논문을 살펴 보면 응급실에 내원하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주요 호소 증상은 열, 소화기 증상(구토, 복통), 기침, 두통 순이다. 특히, 타 연령 그룹에 비해 신생아, 영아(15.4%), 1~4 세 소아(42.3%)가 소아청소년 환자의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2배에 달했다. 1세 미만의 영아는 중환 비율(2.2%)이 가장 높았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소아의 연령별 주 증상



Kwak YH et al. Pediatric Emergency Department Utilization in Korea. J Korean Med Sci. 2012; 27: 1222-8

소아 환자들은 성인에 비해 의사표현을 잘 못하고, 질병과 손상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더욱 더 필요하다. 응급실에서는 소아청소년 응급질환을 감별하기 위하여 다양한 검사가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 간기능 검사를 포함한 일반화학검사, 소변검사, 흉부/복부 X-RAY, 복부 초음파,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내시경 등 여러 검사를 통해 원인 질환을 밝혀내게 된다. 한양대학교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내에 4개의 병상, 1개의 일반격리실과 최신식 펜던트 시스템을 갖춘 23병상의 신생아 중환자실이 운영 중이다. 또한, 소아청소년 응급질환에 필요한 영상 검사(X-RAY, 전산화단층촬영, 초음파, 내시경)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중증의 소아청소년 응급질환은 소아청소년과/외과/영상의학과/응급의학과 등 의료진이 긴밀한 다학제 접근을 통해 진단과 치료를 한다.

신생아 응급질환, 철저한 관리로 막을 수 있다



신생아기는 생후 4주까지의 기간을 일컫는다. 신체 기관이 모두 성장하지 못한 신생아를 위해 보호자의 철저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시기다. 신생아가 응급실을 찾는 수많은 케이스 중 일부는 가정에서의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

글: 김창렬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보호자의 관리가 곧 예방이다

출생 전 산모로부터 산소를 비롯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던 태아는 출생 직후부터 호흡과 대사, 영양 섭취, 배설 등 모든 일을 자기 스스로 해야 한다. 하지만 출생하자마자 걷고 뛰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뇌가 미성숙된 상태로 태어난 신생아는 보호자의 보호와 관리 없이는 사실상 생존이 불가능하다. 요즘과 같이 초저출산 시대에는 핵가족이 보편화되어 조부모로부터 육아 경험을 전수받을 수 없고,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관리를 전담하면서 정작 부모의 육아 경험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의학 정보가 넘쳐나 제대로 된 신생아 관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올바른 신생아 관리 방법과 어떤 경우 병원의 진료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분만 손상



엄마의 좁은 산도를 통해 출생한 신생아에게는 분만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머리에 혹이 만져지는 두혈종, 쇄골을 누를 때 아파하거나 생후 2~3주경 몽우리가 만져지는 쇄골 골절, 울거나 얼굴을 찡그릴 때 안면이 비대칭으로 보이는 안면마비, 팔과 손의 움직임과 힘이 약한 팔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의심되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수유



일반적으로 생후 3시간 이내에 수유가 시작되는데, 수유 횟수는 생후 4개월까지 2~4시간 간격이나, 혹은 아기가 배고플 때마다 하게 되는데 대개 하루 6~10회의 수유를 한다. 특히 신생아기에는 수유 간격이 5시간 이상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출생 후 1주 동안은 출생 체중의 5~10%가 감소될 수 있고 이후부터는 대개 하루 2~30g씩 증가한다. 만약, 생후 1주가 지나도 체중이 잘 늘지 않는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배변



생후 24시간 내에 첫 대소변을 본다. 출생 첫 2~3일간은 진녹색의 끈적끈적한 태변을 보고, 생후 3~5일에는 다소 묽은 황록색의 이행변을 본 후 정상 변으로 전환된다. 소변은 대개 하루 6~8회 이상 보는데 이보다 적을 경우 탈수가 아닌지 진단이 필요하다. 설사, 변비, 소변 횟수가 줄어들면 병원을 방문한다.

기저귀 발진



기저귀 발진이 있는 경우는 기저귀 종류를 바꿔 보고, 기저귀로 감쌌던 부위는 따뜻한 중성비누나 물로 깨끗이 씻은 후 부드럽게 천으로 닦아 말린다. 물티슈를 사용할 땐 알코올 성분이나 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무엇보다도 깨끗이 씻고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심하면 산화아연 성분의 연고를 바른 후 2~3일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거나 심해지면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

신생아 황달



황달이란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것으로 우리 몸 중 눈의 흰 자위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고 점점 다리, 발 쪽으로 진행된다. 신생아의 6~70%에서 생리적인 황달을 보이는데 생후 2~3일경에 시작되어 5~7일에 사라진다. 특히 엄마 혈액형이 O형이거나 Rh 음성인 경우 병적인 황달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모유 황달인 경우는 생후 1~2달까지 지속될 수 있다. 만약 생후 1주가 지나도 황달이 지속되고 배꼽 아래·다리 쪽으로 노래지고, 아기가 늘어지거나 평소와 다를 때는 진료를 받아야 한다.

배꼽 관리



탯줄은 대개 1~2주 사이에 떨어지는데, 배꼽을 항상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기저귀를 갈 때 마다 소독용 알코올로 배꼽과 주변을 소독하는 것이 좋고 기저귀는 배꼽을 덮지 않게 말아서 배꼽 밑으로 오게 한다. 탯줄이 떨어진 후 피가 비칠 수 있으며 소독용 알코올로 닦아 준다. 배꼽에서 고름이나 분비물이 나오거나 배꼽 주위의 피부가 붉을 때, 배꼽 부위를 건드리면 울 때, 1달이 지나도 탯줄이 안 떨어지면 병원을 방문한다.

구토



아기가 구토할 때, 병적인 구토인지 아니면 단순히 게우는 것(Spitting up)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아기들은 흔히 수유 후 트림과 관계없이 적은 양의 우유를 올릴 수 있는데 잘 먹고 체중 증가 추세에도 문제가 없으며 구토 양이 소량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구토가 지속되고 혈액이나 녹색의 담즙이 섞인 구토와 복통이나 복부 팽만, 설사, 경기가 동반되며 탈수 증상(입이 마르고, 눈물이 없고, 피부 탄력 감소, 소변 감소, 체중 감소)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한다.

수면



신생아는 대개 하루 12~18시간 잠을 자는데, 짧게 자주 자고, 밤에 2~3회 깨는 것이 정상적이다. 아기가 잘 먹고 편안해 보이며, 깨어 있는 시간에 잘 놀고, 체중이 잘 증가하면 수면 시간이 길더라도 문제 없다. 하지만 빠는 힘이 약하고, 피곤하고, 늘어지고, 수유에 관심이 없고,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병원을 방문한다.

진전(떨림)과 경기



신생아는 흔히 손, 발, 턱 부위를 떠는데 대개 진전으로 자연 소실된다. 하지만 한쪽을 응시하거나 자극 없이도 전신 혹은 머리, 팔, 다리가 움찔거리며 손으로 잡아도 멈추지 않는다면 경기인지 감별하기 위해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코 막힘



아기는 비강이 좁기 때문에 환절기와 같이 건조한 날씨나 감기에 걸리면 코가 자주 막혀 숨쉬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는 시원한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습도를 5~60%로 유지하고, 콧물이나 점액으로 막힌 경우엔 눈에 보이는 코 입구까지만 흡인해준다. 심한 경우는 식염수를 콧속에 떨거 점액을 묽게 하여 통로를 확보한다. 숨쉬기 힘들거나 수유가 힘들면 병원을 방문한다.

좋은 습관으로 예방이 가능한 경우

감염 예방



신생아는 면역력이 약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나 감기나 설사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은 피한다. 감염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은 손을 깨끗이 씻는 일이다. 특히 아기를 돌보기 전후, 수유 전, 기저귀 교환 후에는 반드시 손을 닦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외출



퇴원 후 첫 2개월 동안은 되도록 외출을 하지 않아야 하며, 날씨가 나쁠 때는 특히 외출을 피해야 한다. 외출할 때는 날씨를 잘 살펴 옷을 입히고, 아기의 피부는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생후 1세까지는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한다. ☀️

소아에게 발생하는 소화기 응급질환



응급실에 내원하는 소아 환자 중 30%가 복부 증상을 호소한다. 원인이 되는 주요 질환으로는 급성 위장관염, 위십이지장 궤양, 장간막 임파선염, 급성 충수염, 식중독, 신우신염, 간담도 염증, 약물 중독, 복부 손상 등이 있다.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는 이러한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시행한다.

글 김응주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소화기 응급질환 중에서는 단계적 진단 검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특수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내시경 검사가 가장 대표적이다. 아이가 이물을 삼킨 경우, 그 이물이 심각한 장점막 손상을 초래하는 종류에 속하면 신속히 내시경을 삽입하여 이물을 제거해야 한다. 강산, 강알칼리 등 독성물질을 삼킨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에 위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손상의 정도를 파악하여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위장관 궤양이 있는 환자가 출혈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신속한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출혈의 정도를 파악하고 지혈술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실제로 응급실을 경유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는 소아 환자의 사례다.

위장관 이물

나이가 어릴수록 작은 물체를 입에 가져가는 경향이 있고, 금속의 맛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다. 이물 삼킴은 영유아뿐 아니라 학동기 소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의 여러 증례를 통해 응급실에 내원한 소화관 이물 환자들을 소개한다.

01



소아가 이물을 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삼키기 쉬운 물건들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동전을 낮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한다.

10세 남아. 500원짜리 동전을 삼켜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입원하여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위장 내에 동전이 보여 겸자로 제거하였다. 동전에는 날카로운 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위장 점막에 궤양성 손상이 발생하였다. 환자는 치료 후 다음 날 퇴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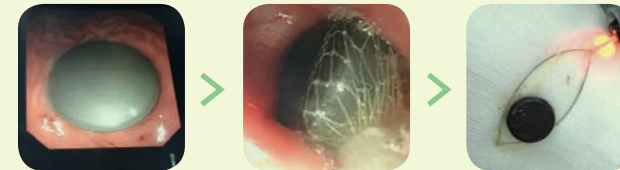
02



나이가 어릴수록 이물을 삼켰을 때 장기가 손상되거나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소아는 손에 잡히는 것이 무엇이든 삼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세 남아. 100원짜리 동전을 삼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전신마취 하에 내시경적 이물제거술을 받았다. 이 환자 역시 동전에 의해 출혈성 손상이 발생하였다.

03



소아가 사용할 장난감이나 완구 등을 구입할 때에는 사용 가능한 연령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작은 부품이 쉽게 빠지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5세 남아. 자석을 삼켜 전신마취 하에 내시경적 이물제거술을 시행받았다. 자석을 두 개 이상 삼켰을 경우, 그 자석들이 장벽을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다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결국 천공이 생기게 된다. 이 환자에서는 한 개만 삼켰으므로 위장관에 큰 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04

5세 여아. 살구씨를 삼킨 후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배가 아파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살구씨 가장자리가 날카로워서 위장 점막 손상이 과해질까 염려되어 신속히 내시경적 이물제거술을 시행하였다. 다행히 살구씨가 십이지장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 내부에 있었고 잘 제거되었다. 이물을 삼킨 아이들의 경우, 이물의 종류에 따라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집에서 관찰하며 기다리지 말고 신속히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

부식성 식도 손상

강산, 강알칼리는 구강점막과 식도에 심한 부식성 손상을 일으킨다. 다음 환자는 15세 남아이며, 강산이 아닌 초음료를 자주 마신 이후에 극심한 복통을 호소해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식도 점막에 다수의 궤양과 출혈이 관찰되었으며 치료 후 호전되었다.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

소아와 청소년 시기에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위십이지장 질환이 발생한다. 그 원인은 헬리코박터 감염, 약물, 스트레스, 바이러스 등 다양하므로 원인의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다음 환이는 심각한 복통으로 응급실로 내원하여 입원한 환아로서 내시경 검사 상 위장에 다수의 궤양이 관찰되었고 치료 후 호전되었다.



이외에도 많은 소아 환아들이 복부 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한다. 위장관 출혈, 식도 열상, 알레르기성 위장질환, 위장 마비, 식도 질환에 의한 흉통 등 다양한 환자들이 소아 연령에서도 존재한다. 심각한 소화기 질환의 경우, 응급실 내원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통증이 지속적이고 심한 경우, 야간이나 새벽에 통증이 있는 경우, 복부 중심부로부터 먼 곳이나 편측에 통증이 있는 경우, 음식 중인데도 구토를 하는 경우, 혈변이나 토혈이 있는 경우 등의 상황이라면 심각한 복부 질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속히 응급실에 내원하는 것이 좋다. 📞

응급수술이 필요한 소아외과 질환



소아외과 질환 중 급성 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출생 후 선천적인 장폐색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과 이후 15세 이전까지 연령대별로 일어날 수 있는 급성 복증으로 나눌 수 있다. 신생아 및 소아의 경우 증상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보호자가 문진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글. 하태경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소아의 경우 압통과 반발통은 환자의 표정 변화를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고 근육경직은 아기를 달래면서 복부 촉진을 통한 촉감으로 감별하여야 한다. 응급수술을 요하는 복부 질환은 상부 위장관 폐색과 하부위장관 폐색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상부위장관 폐색은 빈번한 구토를 동반한 전해질 장애를 주요 증상으로 하며 하부위장관 폐색은 복부 팽만과 이후 호흡 곤란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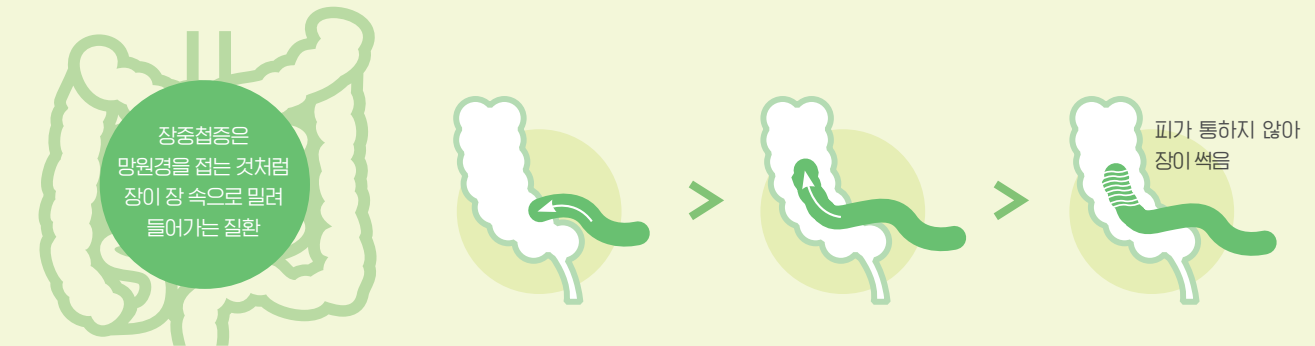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장폐색증

신생아 과사성장염 미숙아로 출생한 환아에서 가장 잘 발생하는 급성 복증으로 복부 팽만, 구토, 혈변 또는 설사를 동반하고 급속히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질환으로 대부분의 환아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견되어 치료를 받는다. 다행히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환자의 치료 후 합병증이 적고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장화전이상 및 중장염전증 정상적으로 출생한 환아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장폐색 증상으로 소장 전체가 과사에 이르러 수술 후에도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가장 빠른 응급수술이 필요한 질환이다. 이 질환은 선천적으로 장화전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소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상장간막동맥의 폐쇄로 급성 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정상적인 환아에서 갑자기 구토와 복부 팽만을 증상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장염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에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던 환아가 갑자기 녹색 담즙 색깔의 구토를 하는 경우 항상 감별 진단으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초응급질환이다.

선천성 거대 결장증 직장 및 대장의 일부에 신경 세포의 비정상적인 발생으로 태변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출생 후 복부 팽만과 담즙성 구토를 주소로 내원하는 질환이다. 신생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생 후 48시간 이내에 태변 배출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의심해 보아야 한다. 진단은 대장 조영술과 직장 생검법을 통해서 신경절의 존재 유무를 확인한 후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장충첩증의 개념



쇄향 출생 후 항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쇠향이 라고 말한다. 이 질환의 경우 항문 주변을 살펴 보면 대부분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확률이 다른 질환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수술은 항문 발생 정도에 따라서 예후의 차이가 매우 크다. 남아의 경우 요도 및 방광, 여아의 경우 질과 생식기와 직장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수술이 매우 힘들고 수술 후에는 생식기 및 배뇨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연령대별로 진단되는 소아장폐색증

장충첩증 1살 전후에 가장 잘 발생하는 장폐색증으로, 건강하게 잘 놀던 아기가 경련을 동반한 복통으로 갑자기 두 다리를 올리고 자지러지듯이 울며 진정이 되지 않아 내원하는 경우가 흔하다. 통증은 약 5~30분 정도 간격으로 발생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서 복통이 없을 때는 굳히 잠을 자게 된다. 장폐색이 심해지면 점액 혈변을 볼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 초기에는 비수술적방법인 관장법을 시행해 보고 실패한 경우에는 조기에 수술을 시행해야 예후가 좋다.

급성 충수염 소아의 충수염은 진단이 성인에 비해 어렵고 천공 발생이나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세 이하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아에서 우하복부 동통을 동반한 복통은 항상 충수염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증상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이 되는 경우 입원 후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외과적인 관찰 기간을 24시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증상의 변화를 관찰한 후 충수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

교액성 서혜부 탈장 소아에서 가장 흔한 외과적 질환 중 하나가 서혜부 탈장이다. 대부분의 서혜부 탈장은 응급수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탈장낭 내로 장이 탈출되어 혈류의 장애로 인해서 장괴사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응급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조기에는 탈출된 장의 도수 정복을 시행하여 복강 내로 정복한 후에 입원 후 1~2일내에 수술을 시행하며 도수 정복이 되지 않고 장괴사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응급수술을 통해서 장정복과 탈장 교정술을 시행한다.

손상기전 확보가 중요한 소아복부 외상

소아의 경우 복부 외상은 사고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들어 부모 및 어른들에 의한 학대로 복부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내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자의 증상과 더불어 주변 인물을 통한 문진이 필요하다. 적절한 영상학적 검사 및 추적 관찰도 진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신생아 및 소아에서 응급수술이 필요한 복부질환을 증상에 따라 조기에 분류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환자의 보호자를 통한 문진이 필수적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세심하게 진찰을 시행함으로써 의사의 감각을 최대한 활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앞서가는 의술을 펼치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핫이슈를 소개합니다.



한양대학교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환자와 더 가까이

보호자 걱정 줄이고, 간병비 부담 덜어주는 안심 시스템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입원하면 돌아가며 보조 침상에서 새우잠을 자는 풍경도 점차 사라질 듯하다. 바로 간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 중심의 한 단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덕분이다. 한양대학교병원도 지난해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개소하고 운영 중이다.

글: 윤진아 사진: 김지원

전담 간호인력의 24시간 집중 케어

한양대학교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본관 20층을 리모델링하고 최적화된 의료 시스템을 구축, 지난해 12월 26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용 병동을 개소한 바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끌고 있는 소화기내과 전대원 교수는 “오랜 기간 준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한 지 이제 막 3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은 생소한 서비스에 시행 초기 낯설어하던 환자분들도 있었지만, 전담 의료진, 간호인력의 집중 케어를 받으면서 비용 부담도 덜게 되니 점차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지만, 앞으로 한양대학교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이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비는 물론 간병 부담까지 걱정 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장기간 간병이 필요할 때에는 보호자가 생업을 포기하고 간병에 매달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한양대학교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개소 소식은 특히 장기 입원 및 만성병 환자 간병으로 지친 보호자들에게 ‘가뭄 속 단비’ 같은 희소식이었다.

윤인숙 파트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이후 환자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간호사가 간병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면서 입원 환자의 욕창 발생률이나 낙상, 투약 오류 사고도 현저히 감소하는 등 현재까지 매우 좋은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은 고통에서 헤어나기를 원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외면받지 않기를 원하며, 의료진으로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를 받고 싶어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된다는 환자가 많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환자들은 어떨까. 환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효과는 직접 체감하고 있을까? 현재 3차 항암치료를 마치고 입원 중인 김시열 환자는 “저는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 처지라서, 가끔 조카가 들러 심부름이나 해주고 금방 가는 게 전부였죠. 친절하고 똑똑하기까지 한 ‘가족’이 갑자기 많이 생겨서 참 든든합니다. 전문가들이 24시간 돌봐주니, 안심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있습니다.(웃음) 고마운 마음에 매번 시답잖은 농담을 던져도 상냥하게 받아주는 간호사님들 덕에, 오히려 아프기 전보다 더 많이 웃고 지내요. 눈치 보지 않고 기댈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든든한 ‘내 편’이 생기니, 말도 더 많아지고 우울했던 기분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라며 웃어 보였다.

Mini Interview

“환자 부담 덜어낸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대원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과장



“환자와 환자 가족 모두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김준희 파트장
본관 20층



보호자가 없는 환자 중심의 안심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보호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간병비의 부담을 줄여주며, 환자의 빠른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와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하여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파서 입원이나 수술을 하려면 환자를 돌봐줄 보호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이 큼니다. 한양대학교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는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밀착 간호·간병에 나선 만큼 안심하셔도 됩니다. 보호자 없이도 입원 생활에 전혀 문제 없는 안전한 시스템 아래, 이제 걱정은 내려 놓으시고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우리나라 병원은 대체로 4인 이상의 다인실이 많은데, 병문안 문화로 인해 병동 내 감염병 전염 위험이 크다고 진단됐습니다. 실제로 이전에는 보호자나 일반 간병인이 병실에서 취사, 사식 섭취 등등 병실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왔는데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동안 간호·간병을 전담하면서 감염 통제도 가능해졌습니다.



총 52병상 규모 전문병동 운영

한양대학교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우선적으로 소화기내과와 호흡기내과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해, 지난 3월 20일부터는 내분비내과와 혈액종양내과 환자의 입실도 가능해졌다. 총 52병상 규모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중앙모니터링시스템, 서브스테이션, 환자 감시 장치, 환자 이동 보조기구, 전동 침대, 낙상 감지 센서, 침대용 목욕실 등의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고 환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간호사(44명)와 간호 조무사(8명), 간병 도우미(4명) 등 모두 56명의 전문인력이 24시간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1일 7~8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간병비 부담을 줄여준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는 물론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면회객을 제한하여 다른 질병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진의 호응도 높다.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손장원 교수는 “지

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병원 안전의 취약함을 보완하고 환자들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시스템이 바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며 “운영해보니 향후 모든 병원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병원은 대체로 4인 이상의 다인실이 많은데, 병문안 문화로 인해 병동 내 감염병 전염 위험이 크다고 진단됐습니다. 실제로 이전에는 보호자나 일반 간병인이 병실에서 취사, 사식 섭취 등등 병실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왔는데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동안 간호·간병을 전담하면서 감염 통제도 가능해졌습니다.”

환자를 최우선에 두다

새벽 기상 준비부터 시작해 늦은 밤 일지 작성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팀의 하루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일과의 반복이다. 주사, 기도 관리 간호, 단순 드레싱, 욕창 간호 등 전문간

호영역뿐만 아니라 개인 위생, 식사 보조와 투약, 운동 및 이동 보조 등의 간병서비스도 직접 제공한다. 게다가 각종 응급상황에 대처하다 보면 하루 24시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간다. 시간이 지날수록 할 일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을 느낀다는 김준희 파트장은 “우리의 관심과 노력 하나 하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표준이 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투병하면서 환자는 물론 보호자도 마음의 문이 닫히기 십상인데, 적절한 치료와 보살핌으로 활력을 되찾으면서 표정이 나날이 밝아지는 걸 느낍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특히 노인 환자의 경우엔 투병의 끝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환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회복에 전념하고, 환자 가족도 일상생활을 보장받으며 효율적인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매일 밤 그날의 일과를 정리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들은 다시 한번 사명을 점검하고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는다. 심신이 지치고 병든 환자와 가족들에게 건강과 웃음을 되찾아주는 게 이들의 몫.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전인치료는 계속될 것이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의 '친절한' 설명으로
그 치료법과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우울증·불안장애로 번질 수 있는 질환, 이명

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의 이명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내 귀 속에서만 ‘빠—’하는 소리가 나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것이다. 꽤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금방 사라지기도 하는 이 정체 불명의 ‘소리’는 흔히 ‘이명’이라고 불리는데 그 원인과 치료법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 편집실



푹푹한 청춘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는 역도 선수 김복주(이성경)와 수영 선수 정준형(남주혁)이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다. 다만 이 드라마가 여타 멜로 드라마와 다른 점이 있다면 두 주인공이 운동 선수이며, 선수로서의 성장담이 함께 진행된다는 점이다.

극중 정준형은 수영 선수에게 치명적인 ‘스타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은 수영이라는 종목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싶을 만큼 수영에서 스타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하지만 정준형은 출발선에만 서면 자꾸만 작아지고, 심지어 이명까지 겪게 되면서 큰 좌절에 빠진다.

다른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출발 신호음에만 집중해야 하는 수영 선수에게 이명이라니, 참으로 잔인하기도 하다. 온 정신을 집중해보려고 해도 나에게만 들리는 ‘빠—’ 소리 때문에 정준형은 결국 부정 출발로 실격을 당하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이명은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 이명(Tinnitus)은 라틴어로 ‘울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의 소리 자극이 없이 환자 자신의 신체 내부에서 소리를 느끼는 증상이다. 이명은 매우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으로 외부 소음이 없는 방음실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95% 정도가 약한 이명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2009~2011)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의 약 30%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이명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중 6~8%는 이명으로 인해 수면장애를 겪기도 한다.

이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짜증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이명은 일상생활을 방해하며 스트레스 증가, 피로감 극대화, 집중력·기억력 장애, 급기야 우울증 및 불안 장애 등으로 증상이 번질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세심한 검사 필요해



이승환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비인후과



주관적 이명과 객관적 이명 구분해야

이명은 크게 주관적 이명과 객관적 이명으로 분류된다. 전체 이명 환자의 90%를 차지하는 주관적 이명은 주로 매미 소리, 파도 소리 등으로 표현되며, 감각신경성 이명이라고 한다. 감각신경성 이명은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돌발성 난청, 이독성 약물의 사용, 메니에르씨 병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뇌종양, 청신경 종양 등 청각 신경 경로의 질환에 의해 유발된다.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있으며, 특히 심한 정신적·육체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생기기도 한다.

객관적 이명은 귀 주변의 혈관, 근육, 이관 등에서 발생하는 소리이며, 검사자가 청진기를 이용해서 들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혈관 문제로 발생하는 이명은 ‘썹썹’, ‘욱욱’ 등으로 표현되며 맥박에 일치하는 박동성 이명이 특징적이다. 그 원인은 혈관이 늘어나 있거나 동맥과 정맥 사이의 비정상적인 통로가 형성되었거나, 혈관 주위 종양 등 구조적 문제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혈관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젊은 여성에서 빈혈, 심한 운동, 임신,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을 때에도 정맥에 흐르는 피의 양이 증가해서 이명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근육의 문제로 생기는 이명은 구개근 경련(Palatal Myoclonus)과 중이근 경련(Middle Ear Myoclonus)으로 나뉘며, ‘딱딱딱’으로 표현된다. 턱관절 문제, 이관기능 장애 등에 의해서도 비슷한 소리가 나타날 수 있다.

적합한 검사와 치료법 선택이 중요

이명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므로 반드시 이비인후과 의사의 진찰을 받고 원인이 무엇인지, 이명의 상태가 어떤 정도인지, 어떤 치료가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이염, 외이도염 등에 의해서도 이명이 발생할 수 있어 고막, 외이도에 대한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감각신경성 이명은 난청과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양한 청력검사를 시행하여 중추 및 말초 청각 경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신경 종양 등 중추성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MRI 촬영을 시행한다. 혈관 기원의 이명이 의심되는

경우 고혈압, 빈혈,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의 여부를 검사해야 하며, 혈관 조영 CT, MRI, 혈관 조영술로 진단 가능하다. 근육의 문제로 이명이 발생하는 경우는 근육 경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뇌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 검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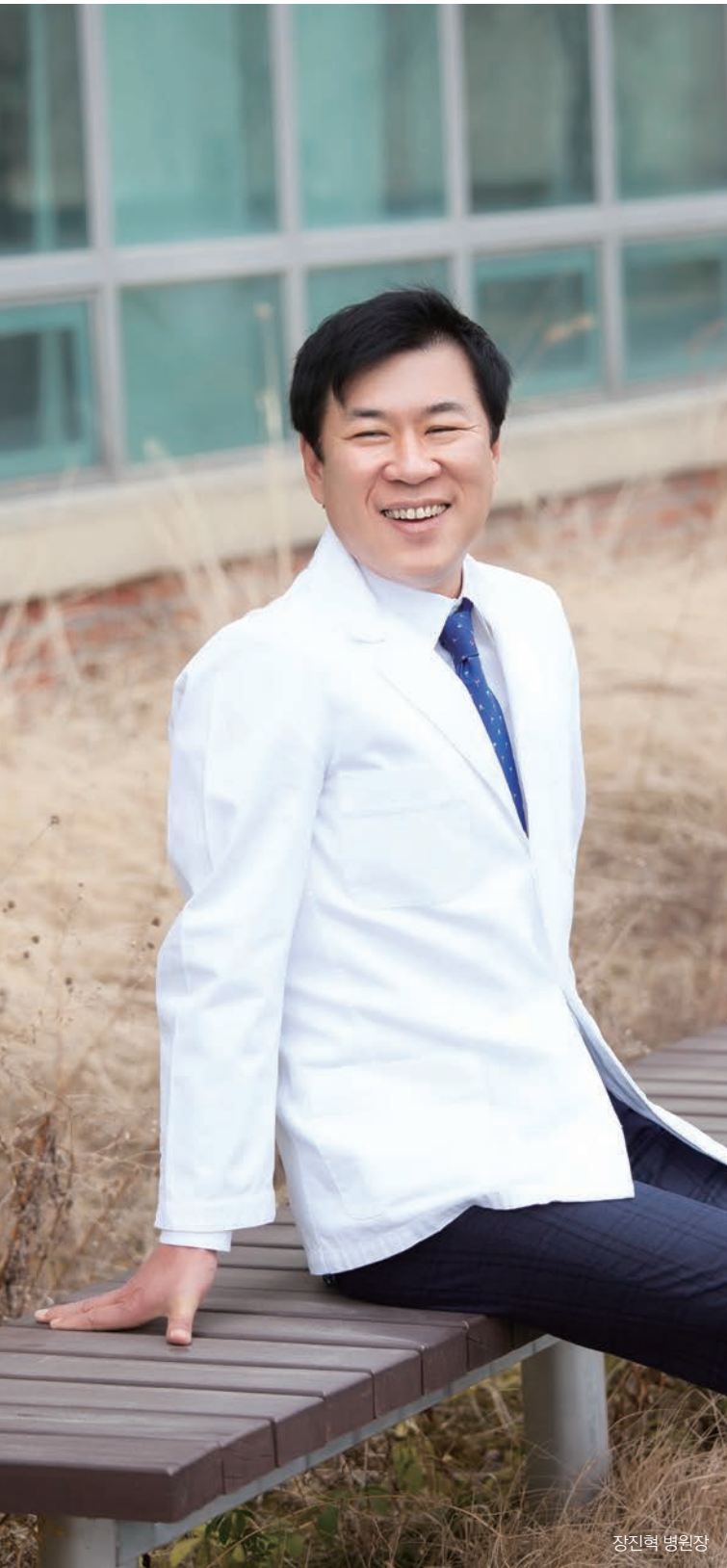
이명의 원인이 확실히 밝혀진 경우는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혈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이명은 혈관을 묶어주거나, 동-정맥 통로를 막아주는 시술로 완치될 수 있다. 또한 근육의 문제로 발생하는 이명 역시 약물치료, 보톡스 주사, 중이근육 절제술로 비교적 쉽게 완치 가능하다.

전체 이명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감각신경성 이명은 약물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난청이 발생한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주사치료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으나 청각세포나 신경의 영구적 기능저하에 의한 만성 이명은 약물치료로 완치하기 어려우며 이명에 의한 불쾌감, 불안 및 불면증 등을 감소시키는 보조적인 치료가 시행된다. 이명 재훈련 치료(Tinnitus Retraining Therapy)를 통해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 외에 알려진 방법으로 바이오 피드백, 전기자극 치료,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술, 미주신경 자극요법 등이 있지만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Tip. 이명 재훈련 치료란?

만성 감각신경성 이명의 치료에 적용하는 치료법으로, 개별적 상담과 소리 치료로 구성된다. 개인 면담을 통해 이명의 발생 과정 등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환자가 이명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고 이명에 의한 환자의 심리적 반응 등을 분석하여 이명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동시에 이명으로 인한 반응의 습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보청기나 소리발생기를 이용하여 소리 치료를 시행하며,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치료 기간이 소요된다.

상호 협력하는 의술로
고객의 건강과 삶을 돌봐온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최고
협력병원을 소개합니다.



장진혁 병원장

‘한양’으로 통하는 건강한 동행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협력병원 남양주한양병원

2009년 3월 4일 남양주한양병원이 문을 열었다. 20개 이상의 진료과와 다양한 전문 진료 센터를 갖추고 있는 남양주한양 병원은 환자들에게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양대학교구리병원과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하며 경기북부지역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남양주 지역의 대표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남양주한양병원을 소개한다.

글: 황원희 사진: 이승현

‘한양’이 곧 ‘건강’이 되다

“인구수가 50만 명 이상인 수도권 지역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 병원이 하나씩은 있어요. 65만 명을 넘어서는 인구수를 가진 남양주시에도 응급 환자부터 일반 진료 환자까지, 모든 케이스를 케어할 수 있는 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거점 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남양주한양병원 장진혁 병원장이 8년 전 이곳, 남양주시에 남양주한양병원을 개원한 이유다.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랜드마크가 되고자 했던 그의 바람대로 남양주한양병원은 같은 해인 2009년 5월 남양주 지역 최초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진료과와 전문 진료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중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는 심근경색 증의 치료를 위한 심혈관센터의 스텐트 삽입술이나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수술은 남양주 지역에서 저희 병원만이 할 수 있는 시술과 수술입니다. 내시경 시술에 있어서도 간담도 내시경과 기관지 내시경 등 일반 병원에서는 다루지 않는 세부적인 분야의 진료가 가능하죠. 관내 종합병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투석실을 갖추고 있는 것도 특징이에요.”

다양한 진료과와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의 조화는 남양주한양병원이 지역의 거점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 그리고 개원 초기 이뤄진 한양대학교구리병원과의 협력병원 협약 체결은 경기북부지역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이

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한양’은 곧 ‘건강’이라는 이미지를 각인 시켰다.

“한양대학교는 저의 모교이자, 친정이에요. 이곳에 터를 잡으면서 한양의 건강한 이미지를 담기 위해 병원 이름에 ‘한양’을 새겨 넣었어요. 한양대학교구리병원과 함께 경기북부지역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다짐 같은 것이었죠. 단단한 협력 관계 덕분에 8년째 그 다짐을 간직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한양대학교구리병원과의 협력 관계는 의료진의 원활한 소통과 신속한 의료전달체계로 완성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No.1 건강 파수꾼

남양주한양병원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협력 병원 중 환자 의뢰 횟수가 가장 많은 병원이다. 협력 병원이 환자를 많이 의뢰한다는 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가 충분히 쌓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과는 개원 때부터 지금까지 환자 의뢰를 하면서 신뢰 관계를 형성해 왔어요. 의료진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환자 의뢰가 잘 이루어졌고, 예후도 긍정적이었죠.”

남양주한양병원 진료부장직을 겸하고 있는 이성은 응급의료센터장은 두 병원 간의 신뢰와 협조가 잘 이루어질 때 원활한 환자 의뢰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한 환자를 떠올렸다.

“47세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어요. 당시 환자는 심정지 상태였는데 심폐소생술과 심장 제세동기 적용으로 자발 순환 회복이 되었고,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후 의식이 호전된 경우였어요. 이후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선 저희 병원으로 환자 의뢰를 하였고, 심장내과로 입원하면서 환자 상태를 면밀히 검토해나갔죠.”

당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응급처치가 가능하고, 24시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할 수 있는 협력 병원인 남양주한양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했고 이후 이 환자는 무사히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하였다.

“1차 진료 후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 혹은 상급 병원에서 중증 질환을 진료한 후 추적 관찰이 가능한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협력 병원 간의 원활한 소통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남양주한양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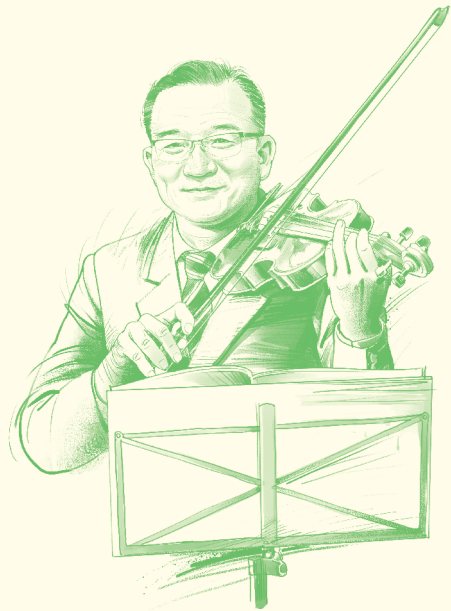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47-55

문의 : 031-510-0114

모범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 중심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병원은 앞으로도 깊은 신뢰와 협력 관계로 경기북부지역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노릇을 톡톡히 이어갈 예정이다. 남양주 지역 내 2차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에 집중하는 남양주한양병원의 건강한 동행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다.🏥



평민을 위한 독일어 최초의 징슈필 오페라



Wolfgang Amadeus Mozart Opera <Die Entführung aus dem Serail> Kv. 384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탈출> 작품번호 384

이 작품은 모차르트가 열두 살에 작곡한 습작 〈바스티앵과 바스티엔〉, 미완성 작품 〈자이데〉에 이어 빈으로 온 후 첫 번째 작곡한 오페라이다. 당시 귀족들의 특권과 복잡한 허례허식을 폐지하고자 오스트리아의 계몽군주인 요제프 2세는 시민들을 위한 오페라를 만들기 원했다.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평민이나 시민 계급을 위해서도 독일어 작품이 필요했다. 게다가 모차르트는 당시 유명한 젊은 오스트리아 작곡가였다는 사실 역시 황제가 이 작품을 의뢰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모차르트는 이러한 목적으로 징슈필 양식의 오페라를 제작하기로 하였는데 ‘징슈필’이란 독일어로 ‘노래의 연극’이란 뜻으로, 18세기 후반에 유행한 독일의 민속적인 연극형식이다. 독일어로 이야기하는 연극적 역사가 들어 있으며, 노래가 풍부히

삽입되어 있는 희극적인 내용인 것이 하나의 특색이다. 이 오페라는 모차르트가 흥미를 느낀 브레츠너(C. F. Bretzner)의 원작을 각색한 슈테파니(J. G Stephanie)의 독일어 대본에 의한 것으로 최초의 독일어로 된 징슈필 오페라가 된다. 모차르트가 이 오페라에서 다섯 명의 주연들을 위해 작곡한 아리아들은 그 선율의 아름다움과 기교의 화려함에서 이후의 어떤 오페라들도 능가하지 못할 정도이다. 물론 <피가로의 결혼> 이후의 작품들이 극적 완성도는 높지만 음악 자체의 다채로움은 이 오페라가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모차르트는 터키풍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18세기 오케스트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심벌, 트라이앵글, 피콜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치와 젊음을 나타냈다. 이 오페라는 총 3막 27장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벨몬테

의 약혼자 콘스탄체가 시녀와 함께 해적한테 잡혀 지방관에게 팔려가자 벨몬테가 콘스탄체를 구하려고 탈출계획을 세웠으나 발각되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지만 그들의 열렬한 사랑에 감격한 지방관의 명령으로 결국 자유의 몸이 된다는 내용이다.

제1막 지방관의 궁전 앞 서곡이 끝난 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나타난 벨몬테는 그 부근의 형편을 살피고 있다. 약혼자 콘스탄체가 시녀 블론데와 시종 페드릴로와 함께 해적에게 사로잡혀 지방관 세림한테 팔려 왔기 때문이다.

그는 보초를 서고 있는 오스민에게 말을 걸어 형편을 알아보았으나 성공하지는 못한다. 오스민이 퇴장하자 벨몬테는 페드릴로로부터 지방관의 열렬한 구애에도 불구하고 콘스탄체의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는 페드릴로에게 도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과 해안을 산책하고 돌아올 때 콘스탄체는 지방관과 이곳을 지나갈 것이라고 알려준다. 그때 지방관이 가까이 오자 벨몬테와 페드릴로는 몸을 피해 숨는다. 콘스탄체는 지방관의 구애에 자기는 애인이 있다고 고백한다. 그 후 페드릴로가 벨몬테를 데리고 가 건축가라며 지방관에게 소개한다.

제2막 지방관의 궁전에 있는 정원 블론데가 아리아 ‘아가씨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부드럽고 철저하게’를 노래한다. 블론데에게 눈독을 들인 오스민은 그녀를 유혹하지만 실패하고 버림을 받는다. 잠시 후 콘스탄

체가 나타나 애타는 아리아 ‘어떠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나는 겁을 내지 않는다’를 노래한다.

그들이 사라진 후 페드릴로는 블론데에게 벨몬테가 와있다는 것을 알리고 탈출 계획도 전한다. 마침 그곳에 온 경비에게 잠자는 악을 넣은 술을 먹이고 인사불성이 된 그를 숨긴다. 그 후 벨몬테, 콘스탄체와 블론데는 테라스에 나타나 삼중창을 부르고 이후 페드릴로가 합세하며 사중창으로 그들의 기쁨을 나눈다.

제3막 지방관의 궁전 앞 어두운 밤중에 벨몬테는 콘스탄체가 있는 창문에 사다리를 놓아 그녀를 구출하는데 성공하고 페드릴로도 같은 방법으로 블론데를 구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때 오스민이 무장한 부하들과 같이 나타나 이들 모두를 붙잡는다. 무대는 다시 변하여 궁전의 넓은 방으로 옮겨진다.

벨몬테와 콘스탄체가 지방관 앞에 끌려 나가자 화가 몹시 난 지방관은 그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린다. 선고를 받은 두 사람은 이중창 ‘이 무슨 운명인가! 이 아이 괴로움’을 노래한다. 자신 때문에 콘스탄체마저 죽게 되는 운명을 한탄하는 벨몬테에게 콘스탄체는 함께 죽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위로한다. 노래를 들은 지방관이 그들의 진정한 사랑에 감동하여 네 사람을 용서하고, 이들은 자유의 몸이 된다. 모두 지방관의 덕행을 찬양하고 근위병의 합창으로 ‘지방관 세림 만세!’를 부르며 막이 내린다. 

들 을 만 한 A l b u m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DG, 1973]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Decca, 1985]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DG, 1954]
	지휘 : 칼 뵘 올린 오케르(콘스탄체), 레리 그리스트(블론데), 피터 슈라이어(벨몬테)	지휘 : 게오르그 솔티 에디타 그루베로바(콘스탄체), 캐서린 배틀(블론데), 고스타 빈베르그(벨몬테)	지휘 : 페렌츠 프리차이 베아트 구트만(콘스탄체), 리타 슈트라이히(블론데데), 에른스트 헤플리거(벨몬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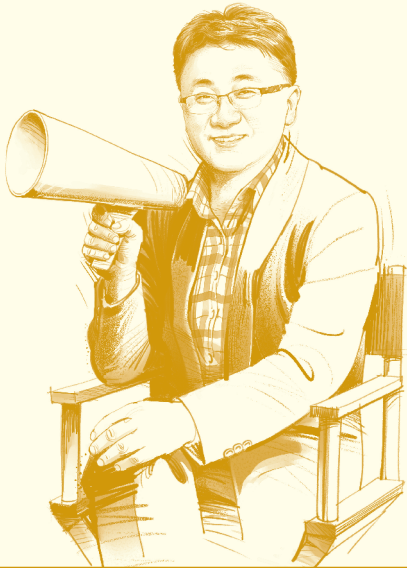


글. 오재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오재원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앙상블과 스탠포드 필로 알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제1바이올린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고전음악에 대한 사랑을 환자를 비롯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필하모니아의 사계>라는 클래식 안내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Y O L O 로 부 터 배 우 는 삶 의 태 도

“인생은 한 번뿐이야. 이게 인생의 진리지. 옴로!”(You Only Live Once, that's the motto. YOLO!) 2011년 발매된 미국 힙합가수 드레이크(Drake)의 노래 'The Motto'의 한 구절이다. 미국 성인 만화영화 심슨 가족 25 시즌의 4번째 에피소드에서 주인공 호머 심슨은 아들 친구의 아버지가 M사의 컨버터블 자동차를 끌고 나와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천편 일률적인 자신의 인생이 한 번으로 끝날 것을 새삼 깨닫고는 우울해한다. 마치 심슨은 그를 위해 어린 시절 펜팔로 알고 지내던 에두아르도를 스페인에서 초청하여 어린 때의 꿈을 하나씩 이루게 도와준다. 이때 흐르는 음악은 영화 <007> 시리즈의 “You only live twice.”의 패러디 버전이었다.

‘YOLO’는 전 미국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건강보험 개혁안인 일명 ‘오바마 케어’를 독려하기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에서 “YOLO, Man”을 외침으로써 화제가 되었다. 한 번뿐인 당신의 인생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미를 담은 표현인 셈이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불황 속에서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처럼 고생 끝에 낙이 있다는 케케묵은 잠언을 부정하게 되었고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는 트렌드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오늘은 내일을 위해 거쳐가는 시

간일까? 아니. 오늘 가장 멋진 000.”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는 것에 길들여지지 말 것. 오늘 가장 멋진 000.” 최근 출시된 한 자동차 광고는 이 한 구절이 전부이다.

사람은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단지 저마다 인생의 여정을 완료하는 시점이 미리 공지되지 않았을 뿐이다. 오늘이 내 남은 인생의 첫 날임을 깨닫게 된다면 처음이라는 순수함을 가지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삶 앞에 겸허히 설 수 있지 않을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명의 노인이 2인용 병실에서 만난다. 6개월 시한부를 선고받은 사업가 에드워드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카터 역시 같은 선고를 받고 망연자실해 한다. 일과 결혼한 사업가와 아내의 빠른 임신으로 공부를 접어야 했던 자동차 정비사. 이 둘은 항암치료의 후유증으로 뜬 눈으로 지새는 밤이 많아지며 점차 가까워진다. 카터가 45년 전 대학신입생 시절 철학교수가 내주었던 과제를 회상하며 적었던 버킷 리스트를 보게 된 에드워드는 리스트에 몇 가지 내용을 추가하고는 함께 떠나자고 제안한다.

<버킷 리스트(2007)>는 <노킹 온 해븐스 도어(1997)>의 할리우드 버전으로, 희망과 할 일이 남아 있는 한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는 진리를 보

여주는 영화다. 최고의 커피라고 여겼던 루왁 커피가 고양이가 먹은 원두를 배설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눈물이 나올 때까지 웃던 둘, 오랜 기간 연락을 끊었던 딸과 만나 예쁜 손녀와 키스를 하던 에드워드, 그리고 화장된 채 캔에 밀봉되어 히말라야 정상에 놓인 에드워드와 카터의 버킷 리스트는 이렇게 완성되었다.

“삶은 당신이 잠들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느 누군가의 과거가 다른 사람에게는 미래가 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바로 30년 전의 나라면, 인생이 다르게 진행 될 수도 있을까.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2016)>는 프랑스의 소설가 기욤 뮈소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다. 사랑하는 여인을 사고로 잃고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 두었던 아픈 과거를 시간 여행을 통해 되살리려는 소아외과 의사 수현의 시도는 캄보디아 의료봉사에서 만난 현지 노인이 건네준 선물(절실한 바람을 이룰 수 있다는 신비한 환약)을 통해 결국 성공한다.

연아를 살리되 그녀와 결혼한다면 딸 수아는 존재할 수 없기에 그녀와 모질게 헤어지는 것을 선택하게 되지만 과거에 다녀올 때마다 수현의 주변 인물들은 조금씩 변하게 된다. 마치 <백 투 더 퓨처> 시리즈처럼 과거의 조그만 사건 하나가 미래의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나비효과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단 한 번의 인생이기에 선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이 따를 수도 있지만 사랑은 그 모두를 생색하고도 남을 가치가 있음은 만고불변의 진리임을 이 영화는 말하고 있다.

자연 치유 능력을 통해 수 세대를 거친 전장에서도 살아 남는, 영원 불멸의 신체를 가진 돌연변이 슈퍼 히어로가 있다. 그러나 치유 능력이 상실되어 점차 죽어가는 그의 쇠락한 몸은 기댈 곳 없는 마음과 함께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한다. 적들을 잔인하게 살상하면서 쌓여가는 영웅적 허무주의는 과거로의 회귀는 불가능하여 정든 사람 곁을 떠날 수 밖에 없다는 고전 영화 <세인(1953)>의 마지막 장면을 상기시킨다. <로건(2017)>은 <엑스맨> 시리즈의 주인공 울버린의 스피ن 오프인

<더 울버린(2013)>의 완결편으로서 서부영화의 형식을 차용하였다.

단 한 명의 연인을 잊지 못하고 지겹도록 살아야만 하는 운명을 지닌 로건은 어느 날 자신의 DNA를 물려받은 소녀 로라를 만나면서 살아야 할 의미를 깨닫게 된다. 감정 표현이 서툰고 사랑 표현에 익숙지 못해 마음에도 없는 심한 말을 내뱉는 그이지만 생물학적 딸인 로라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스스로 저주라고 생각했던 살상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마지막 돌연변이 후손을 지키기 위해 온 몸으로 적들의 공격을 받아내며 장렬히 전사하는 울버린은 자비에르 교수와 함께 어느 이름 모를 곳에 묻히게 된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두 눈을 감고 마는 그에게 로라는 로건을 ‘아빠’라고 부르고 로건은 “이런 느낌아구나”라며 자신을 대신해 살아갈 후손을 마음 깊이 받아들인다. 한 번 산다는 것은 결국 자신과 닮은 어느 누구를 위해 희생하고 그를 위해 없어져야만 한다는 존재론적 가치를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타인을 의식하며 남을 위한 삶을 살아 올 수 밖에 없던 어른들은 이따금씩 회의를 빠진다. 내가 숨쉬는 의미, 남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의미, 철이 든다는 의미, 행복한 삶의 의미는 현재 자리에서 떠나 멀찍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 보지 않는 한 알 수 없다. 영화 <꾸뎔씨의 행복여행 (2014)>, <윌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2013)>은 벽을 허무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어느 날 홀연히 모든 것을 박차고 떠나 낯선 곳에 내던져지거나,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통해 결국 인생이란 무수한 장애물을 넘어 벽을 허물고 가까이 다가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따라서 ‘YOLO’는 미래를 저버리고 회피하는 무책임한 일탈이 아닌, 현재의 나를 적절히 위로하는, 그래서 더 바람직한 나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 아닐까? 더 늦기 전에 버킷 리스트를 작성하여 하나씩 지워나가는 일을 시작해 보기를 권한다. 결국 내 삶은 ‘나’라는 존재 없이는 가치가 없을 테니까. 📺



버킷 리스트(2007)

윌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2013)

로건(2017)



글. 이형중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이형중 교수는 기자를 꿈꾸던 학생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더해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읽히는 까닭은 해박한 영화 관련 지식을 풀어내는 내용은 물론 대중영화와 예술 영화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시각 덕분이다.



앙리 마티스, 대장암을 딛고 이뤄낸 미술적 성취

글. 윤정아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과



앙리 마티스가 주도한 야수파 운동은 20세기 회화를 뒤흔든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원색을 대담하게 사용하고 강렬한 표현을 중요시했던 마티스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작품 세계 확장에 대한 집념으로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평범한 회사원, 색채의 마술사가 되다

앙리 에밀-브누아 마티스(Henri Emile-Benoit Matisse, 1869~1954)는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며 파블로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최대의 화가로 꼽힌다. 기존의 화가들은 빛의 영향을 받아 명암을 강조하거나 빛에 의한 사물의 변화를 관찰하여 그림을 그렸다면 마티스는 그들과 달리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빛에 의존하지 않은 색을 사용하여 ‘야수파(Fauvism)’라고 불리었다. 이러한 야수파 운동은 20세기 회화의 일대 혁명으로 여겨진다. 마티스는 1869년 프랑스 북부의 르 카토 캉브레지에서 태어났다. 상인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뒤를 잇기를 바랐고, 젊은 시절 한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기도 했다. 그러다 21살 때 충수염을 앓고 합병증까지 겹쳐 1년 여간을 요양하며 보내게 된 마티스는 그림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림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즈

“그림에 흠뻑 젖었다. 자제할 수가 없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일종의 파라다이스로 옮겨진 듯한 착각에 빠졌다. 뭔가가 나를 몰아갔다.”

회복된 후 직장으로 돌아간 마티스는 직장생활을 하며 틈틈이 그림을 그렸지만 만족감을 얻지 못했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파리로 떠난 그는 1895년 국립미술학교 교수인 상징주의 화가 귀스타브 모로를 사사하며 본격적인 화가의 길을 걷게 된다.

1905년경부터는 이른바 ‘야수파’의 시기가 전개되었다. 원색의 대비, 단순화된 선을 바탕으로 점차 색을 강렬하게 사용하는 기법을 시도하던 그는 빨강과 초록, 주황과 파랑, 노랑과 보라의 강한 보색 대비와 활달하게 꿈틀거리는 듯한 붓 놀림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감각으로 색을 사용하며 회화뿐만 아니라 판화, 조각 분야에도 수많은 걸작을 남겼다.

왕성한 작품 활동으로 노익장을 과시하던 1941년, 마티스는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대장암 수술과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13년간 침대 신세를 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 이상 이젤 앞에 앉을 수도, 붓을 쥌 수도 없었다.

하지만 마티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안락의자나 침대에 누운 채 가위로 색종이를 오려 붙이는 콜라주 작품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색종이 작품으로 사물의 본질적인 면을 표현하면서 그의 예술 세계는 더욱 풍부해졌다. 이때의 대표적인 작품이 20점의 작품을 모아 펴낸 <재즈>와 <폴리네시아, 하늘> 등이다.

긴 투병생활은 사람을 나약하고 비관적으로 만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시기 그의 작품은 오히려 밝고 평화로우며 따뜻한 색으로 가득 차있다. 이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창작의 끈을 놓

지 않았던 마티스는 결국 1954년 니스에서 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조기 진단 시 완치율 높아지는 대장암

마티스를 죽음으로 몰고 간 대장암은 대장의 점막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이다. 대장은 결장과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가장 암이 자주 생기는 부위는 S상 결장과 직장이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산발성 대장암이 대부분이고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대장암은 전체의 10~30%를 차지한다.

대장암의 증상으로는 대변에 출혈이 있거나 배변 습관의 변화, 변비 혹은 설사, 변이 가늘어 지는 것, 변에 점액이 섞여 나오는 것, 하복부 통증 등이 있다. 최근 생활습관이 서구화됨에 따라 대장암 발생이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대장암 환자는 2005년 6만 8240명에서 2015년 13만 3297명으로 10년새 2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격 전이가 없는 1~3기 대장암의 치료는 수술을 통한 종양 및 주변 임파절 조직의 완전 제거이며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항암 화학 요법 및 필요 시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여 완치율을 높일 수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대장암 수술에서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여 수술 후 통증을 줄이고, 빠른 회복을 도와 일상 생활로의 복귀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대장암은 조기에 진단될 경우에는 완치가 가능하므로 조기 진단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40세 이상은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앞으로
도착한 감사의 편지를
전해드립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환 성형외과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오래 전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김범선님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게중심을 잡을 수 없어 휠체어에 의지하고, 같은 자세로 장시간 누워있다 보니 욕창은 계속해서 재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때마다 다시금 희망을 되새기게 한 것은 김연환 교수의 헌신적인 노력과 김범선님의 집념이 더해진 결과였다. 정리. 이가연 사진. 이승현



김연환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직 날씨가 많이 출던 겨울 막바지에 교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벌써 조금씩 꽃이 피기 시작하는 봄이 오는 것 같네요. 병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이 제법 따뜻합니다.

오래 전 사고로 몸을 마음껏 움직일 수 없다 보니 자꾸만 재발하는 욕창 때문에 교수님을 또 뵈게 되었네요. 지난번에 교수님이 잘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퇴원했는데 이렇게 또 입원을 하게 되니 처음에는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스스로 원망도 많이 했지요.

재발을 막으려고 제 나름대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제 마음 같지가 않았습니니다.

입원 후에도 경과가 좋아서 생각보다 빨리 퇴원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며칠 전 다시 상태가 조금 악화되어서 여러 분들께 또 걱정을 끼친 것 같아요. ‘상태가 이보다 더 나빠지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퇴원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병실에 누워 있자니 괜한 걱정만 커져갔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회진 때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틈틈이 상태를 살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 치료를 잘 마치고 퇴원하게 되면 교수님이 항상 당부하신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요. 저의 건강도 지키고, 저를 잘 치료해주신 김연환 교수님과 한양대학교병원 의료진 분들께도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찾아뵈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범선 드림



퇴원하게 되면 교수님이
항상 당부하신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요.

김범선님께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신가요? 다시 한양대학교병원에 입원하게 되신 지도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어가네요. 건강하게 퇴원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다시 만났을 때 예상보다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지셔서 놀랐습니다.

제가 김범선님을 처음 뵈을 때부터 욕창 수술을 여러 번 진행했는데, 이번에도 욕창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벌어져서 재건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번이 네 번째 재발인 셈이지요. 거동에도 어려움이 있으신 데다 욕창으로 인한 염증으로 정말 많이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욕창은 무게중심을 잡기 어려운 하반신 마비 환자들에게서 흔히 생기는데, 같은 자세로 오래 누워있거나 휠체어에 앉은 채로 특정 부위에 지속적으로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해당 부위의 염증을 깨끗이 제거하고 경과를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경과가 좋다면 2~3주 후부터 휠체어를 사용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 또한 세심하게 지켜볼 계획입니다. 이후 퇴원 시기가 결정될 듯합니다.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제가 항상 당부해드렸던 몇 가지만 꼭 잘 지켜주시길 바라요. 휠체어나 침대에 패드를 착용하시고, 휠체어를 오래 타고 있게 될 때에는 조금씩 자세를 바꾸어 주시면 염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의지가 넘치는 김범선님에게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잘 따라와 주셔서 저 역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에는 꼭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만나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연환 드림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의지가 넘치는 분에게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이
알기 쉬운 건강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입병의 진단과 치료

지용배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료 통해 정확한 원인 파악해야

입은 다양한 외부 물질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이며, 먹고 말하는 등 삶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따라서 입 안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다양한 질환의 발생이 가능하며, 일단 입 안에 병이 생기면 아무리 작은 병이라도 큰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다.

입 안에 생기는 질환 중에는 바이러스, 세균, 진균 등의 감염에 의해 생기는 질환은 물론 특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도 많다. 또한 악성 종양도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 없이 단순한 헛바늘처럼 보이기도 해서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입병은 그 원인이 다양한 만큼 전문의에 의한 진찰이 필수적이다. 선천적인 질환에서부터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늘어나듯 노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질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 발생하게 되면 삶을 위협하게 되는 암까지 여러 질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이야말로 입병을 낫게 하는 가장 첫 걸음이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초기 진단과 함께 때로는 혈액검사나 조직검사도 필요하다.

Point.1

입병의 원인과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구강암, 신속한 진단이 완치를 부른다

많은 환자들이 염려하는 구강암은 입 속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혀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가장 높다. 대부분의 암이 그러하듯이 초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간단한 수술만으로도 완치될 수 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겪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먹고 말하는데 큰 장애가 발생하고, 완치율도 떨어지게 된다.

구강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흔한 원인인 술이나 담배를 멀리해야 한다. 다만 최근에는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구강암 발병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쉽게 안심해서는 안 된다.

구강암은 다른 부위의 암과 달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구강검진만으로도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조기검진 캠페인을 벌여 왔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캠페인이 진행되기도 했다. 크게 불편하지 않은 작은 입병이라도 2주 이상 지속되면 전문의의 진찰을 권한다. 조기 발견을 위해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은 단지 의사 앞에서 “아” 하는 것뿐이다.

Point.2

구강암은 전문의 진찰만으로 충분히 초기에 발견할 수 있다.

- 본 원고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지난 3월 3일 진행한 건강강좌의 내용입니다.
- 한양대학교의료원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강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5+6월 건강강좌 소식은 46쪽 한양캘린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ANYANG NEWS

2017년 3월 ~ 2017년 4월

한양대학교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개원의 연수강좌 개최



본원은 지난 3월 12일 한양종합기술원(HIT)에서 '2017년 한양대학교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소아청소년 진료 A부터 Z까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좌는 한양대학교병원 박현경 교수가 '이른둥이 소아의 진찰과 예방접종',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재원 교수가 '소아아토피 피부병 명의 되기', 한양대학교병원 김용주 교수가 '개원가에서 활용 가능한 소아소화기 진단법', 한양대학교병원 이영호 교수가 '엄마들도 알고 있는 제대혈, 소아청소년 의사들도 알아야 할 제대혈', 상계백병원 구자욱 교수가 '외래에서 흔히 보는 소변 이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문진화 교수가 '뇌를 알고 발달을 알자', 한양대학교병원 김자혜 교수가 '젓병 울이 잡혀요, 사춘기일까요?'를 주제로 강의했다.

산부인과학교실 개원의 연수강좌 개최



본원은 지난 3월 26일 한양종합기술원(HIT)에서 '제23차 산부인과학교실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All Eyes on Hanyang University Controversies 2017'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수강좌는 네 개의 세션과 한 개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최중섭 주임교수는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자궁근종 치료법 중 하이푸와 자궁동맥색전술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들의 열띤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양대학교병원

새내기 예비 의사들, 병원 봉사활동 시작

본원은 본교 의예과 새내기 학생들의 봉사활동 프로젝트인 'HY 옐로자켓 프로그램' 출범식을 갖고



지난 3월 8일부터 환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본원과 본교 의과대학은 지난해 2월 29일 'HY 옐로자켓 프로그램' 협약식을 체결하고, 의예과 1학년 새내기들이 1년간 본원 내에서 환자들을 위해 의료봉사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위암 적정성 평가' 2회 연속 1등급 획득



본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으로 1등급을 받았다. 이광현 병원장은 “위 내시경 진단이 일반화되면서 대부분의 위암 환자들은 초기에 발견되고, 신속한 치료를 통해 좋은 예후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위암센터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른 다학제 협진을 통해 환자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고, 장기생존과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성동구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봉사 실시



본원은 성동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4월 5일 성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의료봉사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안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등의 진료과가 참여해 건강상담, 혈압, 혈당측정, 방사선 검사 등을 진행했다. 본원은 성동구보건소와 연계하여 성동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어린이병원과 양해각서 체결



본원은 지난 4월 4일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과 발달장애 아동의 전문적인 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어린이병원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진료 및 치료에 관한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지원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발달장애 아동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상호 환자 의뢰, 각종 세미나, 연수 프로그램 등 학술 정보 교류를 위한 의학정보 공유, 의료기술 훈련 및 견학자문, 상호 연구 협력 활동 등이다.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연수강좌 개최



본원은 지난 4월 23일 한양종합기술원(HIT)에서 '제16차 호흡기알레르기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의 최신 지견'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수강좌는 세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손장원 과장은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호흡기 및 알레르기를 전공했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최신 정보를 접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폐암 적정성 평가’ 3년 연속 1등급 선정



본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3년 연속 ‘폐암 진료 잘

하는 병원’으로 선정됐다. 이광현 병원장은 “폐암은 증세가 나타나기 전까지 알기가 힘들고, 진단 후에는 생존율이 낮은 암이다”면서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원은 진단부터 수술, 항암치료까지 병기와 유형에 따라 환자 맞춤형 치료를 제공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최우수 ‘A’등급 선정



본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아 6회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장비인력의 법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실 과밀화 지수, 최종치료 제공률 등을 평가한 결과이다. 전국 128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속한 본원은 상위 20%에 해당되어 ‘A’등급을 획득했다. 현재 본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첨단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지상 5층 건물로 증축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개소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루게릭병의 사회복지’ 건강강좌 개최



본원은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3월 25일 본관 3층 강당에서 ‘루게릭병’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4월 22일에는 본교 식품영양학과 백희준 교수가 ‘루게릭병 환자의 영양관리’를 주제로 강의했다.

약물이상반응 세미나 개최

본원 의약품안전센터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 본관 3층 강당에서 ‘제2차 의약품안전센터 약물이상반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는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박동원 교수가 ‘흔히 접하는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약물 부작용’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위암 적정성 평가 2년 연속 1등급 획득



본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위암 2차 적정성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에 발표한 위암 적정성 평가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221개 의료기관에서 원발성 위암으로 내시경절제술 또는 위절제술을 실시한 만 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이며, 본원은 대부분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2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전반기 정년 및 명예 퇴임식 개최



본원은 지난 2월 21일 본관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2017년 전반기 정년 및 명예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민 병원장, 박원겸 부원장, 한동수 기획조정실장 등 1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정년 및 명예퇴임자는 이철범 교수(흉부외과), 박용욱 교수(병리과), 함수미 과장(간호국), 김선기 과장(영상의학과), 이호남 계장(진료협력팀), 이상찬 계장(인사총무팀), 신재철 계장(의무기록팀)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개소식



본원은 지난 3월 20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최근 리모델링을 끝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본관 7층에 32병상을 전용병상으로 운영하며, 소화기내과, 혈중내과 등 급성기 내과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간호사 18명, 간호조무사 5명, 간병지원인력 1명 등 총 24명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용병동의 전 병상에는 전동침대, 낙상방지 감지센서매트, 낙상감지시계 등을 설치했고, 전 병실에 화장실, 샤워실, 목욕 의자, 휴게실, 각종 안내문을 갖춰 환자들이 보호자 없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했다.

구리시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 개최



본원은 구리시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월 건강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3일에는 이비인후과 지용배 교수가 ‘입병의 진단과 치료’, 4월 7일에는 외과 윤정아 교수가 ‘건강한 항문, 상쾌한 하루’를 주제로 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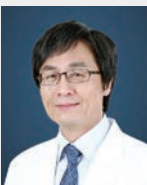
개원의 연수강좌 개최



본원은 지난 4월 22일 본관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경기 동북부 지역의 개원을 대상으로 ‘제17회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보직자를 비롯하여 많은 개원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연수강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문진화 교수가 ‘소아두통, 신경과 최호진 교수가 ‘뇌졸중의 이해’, 정철외과 양재혁 교수가 ‘관절염의 치료’를 주제로 강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심장내과 이웅구 교수가 ‘협심증, 흉부외과 노선균 교수가 ‘말초혈관질환’, 호흡기내과 박태선 교수가 ‘개원가에서의 폐기능검사 시행과 해석’을 주제로 강의했다.

인물 동정



태경 교수, 의학한림원 정회원에 선출
한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태경 교수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에 선출됐다. 태경 교수는 감성선암/두경부암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며, 특히 로봇 수술 전문가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강연과 로봇 수술 시연을 하고 있으며, 많은 외국인 의사들이 로봇 수술을 배우기 위해 한양대학교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김희태 교수, 파킨슨병 200주년 대국민 정책 간담회 개최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김희태 교수(대한파킨슨병학회 및 이상운동학회 회장)는 지난 4월

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파킨슨병 200주년 기념 대국민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파킨슨병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회에서 김 교수는 “파킨슨병의 대국민 인식제고 및 환자와 보호자들의 치료 환경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재원 교수, 의사신문서 감사패 받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재원 교수가 의사신문에 ‘클래식 이야기를 10년간 꾸준히 연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월 17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의사신문 창간 57주년 기념식’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박용천 교수, 남양주보건소 특강 진행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용천 교수가 지난 3월 21일 남양주시 보건소에서 ‘갱년기’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남양주시가 주관하는 2017년 성인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며 ‘중년여성 변화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갱년기의 원인과 요인, 증상, 극복 등에 대한 내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방지훈 전공의, 대한신경외과학회 최우수구연상 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외과 방지훈 전공의가 지난 4월 15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대

한신경외과 춘계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구연부분 최우수 발표상을 수상했다. 방 전공의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경추 불안정성과 관련한 후방 치아돌기 연부조직의 두께와 임상적 요인과의 영향’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최규선 교수, 대한신경외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최규선 교수가 지난 4월 13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7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제35차 춘계학술대회’에서 ‘뇌졸중 환자의 혈중 코렙틴 측정이 예후인자로서 가지는 역할: 체계적 고찰 및 관찰연구 메타분석’이라는 논문으로 혈관부분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최 교수는 “급성기 뇌졸중 발병 초기에 혈중 코렙틴 농도를 측정하면 좀 더 정확한 예후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언론 속 한양인

TV와 신문에 등장한 한양인을 소개합니다.
2017년 2월 ~ 2017년 3월



KBS뉴스
신진호 교수

들쭉날쭉 혈압...
심장병 위험



SBS모닝와이드
정민성 교수

유방암
조기검진으로 극복



KBS2TV
김현영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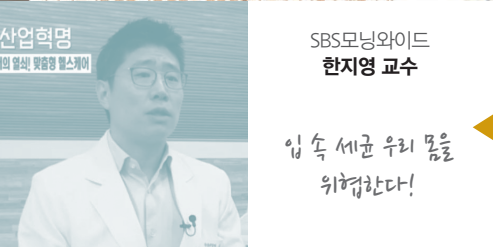
반복되는 어지럼증,
뇌질환 위험 신호!



On-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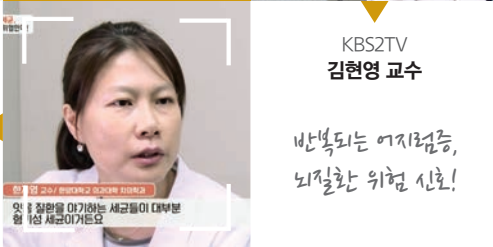


신진호 한양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열악한 중에서는 작은 시간이 짧은 약을 드시는 분들도 관련이 있고
열악한 약을 잘수실 때 꾸준히 잘수지 않고 중간 중간에
약이 바트리는 분을 이런 분들을 열악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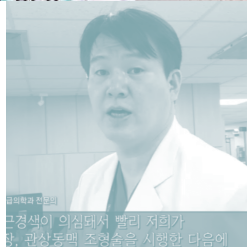
SBS모닝와이드
한지영 교수

입 속 세균 우리 몸을
위협한다!



KBS2TV
김현영 교수

반복되는 어지럼증,
뇌질환 위험 신호!



KBS2TV
김현영 교수

반복되는 어지럼증,
뇌질환 위험 신호!

한양대학교병원 김현영 신경과 교수 KBS1R [라디오 주치의]/ 2월 2일/ 건강 이슈 - 뇌졸중, KBS2TV [여유만만]/ 3월 24일/ 반복되는 어지럼증, 뇌질환의 위험 신호! **이항락 소화기내과 교수** KBS2TV [재난방송센터]/ 2월 6일/ 노로 바이러스 주의...“공동화장실도 감염 경로”, KBS2TV [생생정보]/ 2월 20일/ 소화불량 방지하면 위암까지?!, SBS [모닝와이드]/ 3월 10일/ 식이섬유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 **신진호 심장내과 교수** KBS2TV [아침뉴스타임]/ 2월 7일/ ‘들쭉날쭉’ 혈압...심장병·뇌졸중 위험 **김경수 심장내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2월 7일/ 겨울철 급성 심근경색 주의보, TV조선 [내몸 사용설명서]/ 3월 10일, 심장병 정복 프로젝트, EBS [메디컬 다큐-7요일]/ 3월 28일/ 생과 사의 기로, 응급실 24시 **안동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YTN [사이언스 투데이]/ 2월 9일/ 얇전한 우리 아이...‘조용한 ADHD’일 수 있다? **이형중 신경외과 교수**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월 14일/ 혈관 치명타, 숨은 고혈압을 찾아라! **김석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합뉴스TV [뉴스]/ 2월 14일/ “소를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살처분 트라우마 심각 **노영석 피부과 교수** YTN [사이언스 투데이]/ 2월 20일/ 귀 뚫은 자리에 혹이 자란다? 켈로이드 흉터 ‘주의’, SBS [모닝와이드]/ 2월 21일/ 비상! 2030 여성 탈모 주의보, SBS [모닝와이드]/ 3월 7일/ 당신이 피부에 사용하는 실리콘의 비밀 **이창화 신장내과 교수**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월 23일/ 콩팥 망가뜨리는 3대 독을 찾아라!, YTN [사이언스 투데이]/ 3월 9일/ 오늘은 ‘세계 콩팥의 날’...만성 콩팥병 환자 급증 이유는? **박훈기 가정의학과 교수** KBS1R [라디오 주치의]/

2월 23일/ 춘곤증과 만성피로, YTN [사이언스 투데이]/ 3월 23일/ ‘봄의 불청객’ 춘곤증 극복하는 방법 **정민성 외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3월 14일/ 조기 검진으로 암의 공포 극복 **이영호 소아청소년과 교수**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3월 15일/ 힘을 내자 강민아 **김상현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KBS2TV [생생정보]/ 3월 17일/ 미세먼지, 황사 예방법, SBS [본격연예한밤]/ 3월 28일/ 내과 교수 “구혜선이 알고 있는 아나필락시스 광장히 위험한 병” **전대원 소화기내과 교수** KBS1R [라디오 주치의]/ 3월 21일/ 지방간 **한지영 치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3월 28일/ 입속 세균, 우리 몸을 위협한다! **강형구 응급의학과 교수** EBS [메디컬 다큐-7요일]/ 3월 28일/ 생과 사의 기로, 응급실 24시, KBS2TV [아침뉴스타임]/ 3월 31일/ 동료 구한 ‘심폐소생술’의 힘...“골든타임 지켰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KBS1R [라디오 주치의]/ 2월 3-5일, 10-12일, 17-19일, 24-26일, 3월 3-4일, 10-11일, 17-18일, 24-25일, 31일/ 뮤지 테라피, MBC [AD2100 기후의 반격]/ 2월 13일 **이창범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MBC [기분 좋은 날]/ 2월 22일/ 중년건강의 적! 과식과의 전쟁,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월 28일/ 당뇨 치료의 골든타임 ‘전당뇨병’ **김창선 응급의학과 교수** YTN [사이언스 투데이]/ 3월 9일/ 인류를 위한 산업혁명 스마트 의료지도 **김충현 신경외과 교수** YTN [강소기업이 힘이다]/ 3월 18일/ 환자 면역세포로 치료하는 새로운 항암제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최찬범 류마티스 내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3월 28일/ 입 속 세균, 우리 몸을 위협한다!

한양대학교병원 김승현 신경과 교수 동아일보/ 2월 2일/ 파킨슨병 조기 진단 뇌 회로도 만들었다, 중앙일보/ 2월 2일/ 전기회로 고치듯... 문 제된 뇌세포 ‘족집게 치료’ 길 열려 **김희태 신경과 교수** 조선일보/ 2월 8일/ 파킨슨병 증상 완화 효과 일시적... 부작용도 있어, 아주경제/ 3월 21일/ 파킨슨병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중앙일보/ 3월 6일/ 난 모자라 남과 비교 말고 자기 재능 셀프칭찬 하라 **노영석 피부과 교수** 조선일보/ 2월 15일/ 아크간 헤어 오일, 주성분이 실리콘? **민아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한국일보/ 3월 7일/ 수면제 3주 이상 먹어도 잠 안 오면? **박창주 치과 교수** 건강다이제스트/ 3월 13일/ 임플란트 틀니 “뭐가 다를까?” **송창면 이비인후과 교수** 헬스조선/ 2월 18일/ 콧물, 어떻게 멈추나요? **신진호 심장내과 교수** 건강다이제스트/ 3월 7일/ 내 몸속 무법자, 핏속 찌꺼기 혈전 속시원한 해결책, 중앙일보/ 3월 20일/ 얇아 잇다 일어날 때 핑~ 저혈압, 혈액순환 막는다 **이영호 소아청소년과 교수** 조선일보/ 2월 8일/ 제대혈, 백혈병 등에 효과 있지만 쓸일 적어... 치매 치료 “만 애기” **이항락 소화기내과 교수** 중앙일보/ 2월 6일/ 6개월 새 체중 5% 줄 땀 질병 신평탄...원인 꼭 찾아야, 헬스조선/ 2월 9일/ 내시경만 잘 받아도 위암대장암 90% 이상 완치됩니다, 헬스조선/ 2월 28일/ 은근히 괴로운 소화불량 이기는 법 **임한웅 안과 교수** 서울신문/ 2월 7

일/ [임한웅의 의공학 이야기] 는 CT와 스타워스, 서울신문/ 3월 7일/ [임한웅의 의공학 이야기] 자기공명영상과 테슬라 **전대원 소화기내과 교수** 국민일보/ 3월 14일/ 어르신, 이래도 짜게 드실래요? **최중섭 산부인과 교수** 한국경제신문/ 3월 18일/ 인터넷은 ‘불법약국’...여성흥분제-낙태약까지 거래 **호정규 산부인과 교수** 중앙일보/ 2월 22일/ 난임 40% 비실비실 정자 탓...수정일 열 달 전부터 몸 만들라 **심장내과 헬스조선/ 2월 24일/ 혈압 정상 범위여도 ‘들쭉날쭉’하면... 심장뇌건강 위험** **응급의학과** 조선일보/ 3월 8일/ 뇌졸중 골든타임은 3시간... 응급센터 수준이 치료 좌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지은 감염내과 교수** 헬스조선/ 3월 22일/ 봄바람 타고 불거리수두 기승... 손 씻기만 잘 해도 예방 **김충현 신경외과 교수** 한국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이데일리 SPN/ 3월 31일/ 녹십자셀, 아문셀-엘미 약성 신경교종 치료 ‘새 희망’제시 **류제일 신경외과 교수** 한국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이데일리SPN/ 3월 31일/ 녹십자셀, 교모세포종 임상결과 국제학술지 발표 **박예수 정형외과 교수** 중앙일보/ 2월 20일/ 허리 통증 심할 땐 시술, 만성일 땐 보존요법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헬스조선/ 3월 3일/ 명의특목, 알레르기 질환 관리 수칙과 치료법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최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조선일보/ 3월 15일/ 관절 통증경직 증상... 6주 이내 병원 찾아야



Event

Quiz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지난 2016년 12월 26일 시작된 이 서비스는 간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 중심의 한 단계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3월 20일에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의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소식지와 블로그의 [한양 토픽]을 참고하여 이름, 휴대폰 번호와 함께 정답을 보내주세요. 6월 16일까지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 prhanyang@gmail.com

3+4월호 이벤트 당첨안내

많은 분들이 지난호 이벤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당첨된 10분께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렸습니다.

당첨자

김** kdmlov***@naver.com
전** jk***@hanmail.net

고** pearl-r***@hanmail.net
주** andrea***@naver.com

김** gg***@hanmail.net
이** zod***@naver.com

공** hungryga***@naver.com
백** hui0***@naver.com

이** moderat***@naver.com
박** jin1***@daum.net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Together & Tomorrow

모금 캠페인이란?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힘찬 미래를 향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매월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급여공제, 무통장입금 또는 자동이체
(CMS)를 통해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는 모금 캠페인입니다.

사용 용도	참여 대상	약정 방법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 건립기금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관 신축기금 ●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연구중심병원 발전기금	한양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동문, 환자 및 보호자, 학생 및 학부모, 재단 가족 및 교직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약정하기 :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www.hyumc.com) ⇨ 발전기금 icon 클릭 ⇨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약정서 다운로드 ⇨ 약정서 작성(서명) ⇨ 팩스(02-2296-3806) 또는 이메일 송부(hmcfund@hyumc.com) ※ 문의 :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 Tel. 02-2290-9535~6
※ 발전기금은 법에 의거하여 시설, 연구, 교육, 학술 활동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전기금을 기부해주시는 분들께는 세금공제와 함께 기부금에 따른 예우 혜택이 있습니다.	

기부자 명예의 전당

이 명예로운 자리에 귀하의 소중한 이름을 새기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김태승

[1천만 원 이상]



오미경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

2017년 2월 ~ 2017년 3월 기부자 명단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1천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박인영	곡이비인후과의원	김회숙	약제팀	설인준	소아청소년과	이선이	간호국	정재홍	정형외과		
	구선완	인사총무팀	남승혁	홍부외과	신정철	성남이안과	이성필	정형외과	정진혁	이비인후과		
	박재일	제일내과의원	남영자	마취후회복관리실	성민철	안과	이승욱	비뇨기과	정진환	신경외과		
	태암내과의원	김경화	본관11층	남정현	정신건강의학과	성외순	부속실	이승환	이비인후과	정희숙	QI팀	
홍동균	본이비인후과의원	김금옥	중앙공급실	노선균	홍부외과	성정순	응급의학과	이양섭	원무팀	조기섭	진단검사의학과	
		김남기	재무팀	노정환	병리과	손주현	소화기내과	이영석	정형외과	조상윤	마취통증의학과	
		김도윤	정형외과	류제일	신경외과	손한숙	약제팀	이유경	영상의학과	조아라	영양팀	
		김동섭	KD밝은안과	명동안과의원	송중훈	정형외과	이은희	본관11층	이장현	성형외과	조영아	소통의원
5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김경현	한양대학교의료원	김문성	김문성이비인후과의원	문지용	호흡기내과	신대현	상쾌하이비인후과	이정일	정형외과	조영환	운영지원국
	김대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미혜	본관11층	문진화	소아청소년과	신동한	원무팀	이재인	약제팀	조영진	본관7층
	김순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민규	외과	문홍상	비뇨기과	신순교	응급의료센터	이종	교육연구팀	조재민	조은이비인후과의원
	김재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범석	아침이비인후과소아과	박기철	정형외과	신용운	안과	이종숙	감염관리팀	지용배	이비인후과
	윤영선	한양대학교병원	김봉유	원무팀	박동우	영상의학과	신우중	마취통증의학과	이종희	본관5층	채영림	재무팀
	이동규	이동규내과	김승현	신경과	박미라	외과계중환자실	신인철	약리학교실	이주학	신장내과	채우석	채우석이비인후과
	이상훈	이상훈이비인후과의원	김양옥	신생아중환자실	박성욱	물류팀	신정훈	심장내과	이창범	내분비내과	최경진	최경진정형외과
	임동수	임신경정신과의원	김영보	홍보팀	박시복	재활의학과	신창식	신창식 이비인후과	이주한	영상의학과	최도전	본관8층
조희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영호	정형외과	박예수	정형외과	심경아	본관11층	이진규	정형외과	최미경	간호국	
		김옥중	물류팀	박용미	본관6층	심재향	통증의학과	이창훈	정형외과	최민영	외과	
		김용수	영상의학과	박용천	정신건강의학과	안치원	응급의학과	이창범	정형외과	최성환	최성환 이비인후과	
		김용호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박원희	치과	여광호	진단검사의학과	이철범	홍부외과	최승석	성형외과	
10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김경현	한양대학교의료원	김우길	시설팀	박일규	진단검사의학과	염중훈	마취통증의학과	이혜순	류마티스내과	최완식	새로운정형외과의원
	김대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운용	기획팀	박주원	의무기록팀	오영하	병리과	이화준	QI팀	최정혜	혈액종양내과
	김순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윤영	치과	박지호	간호국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임완예	원목실	최준석	탐이비인후과의원
	김재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이석	정형외과	박찬혁	소화기내과	원영웅	혈액종양내과	장성호	재활의학과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오영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지혜	소아청소년과	박창구	시설팀	유교상	소화기내과	장재선	간호국	최충혁	정형외과
	윤영선	한양대학교병원	김정수	피부과	박태선	호흡기내과	유미경	임상연구지원팀	장지희	건강관리팀	최혁중	응급의학과
	조희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주형	본이비인후과의원	박혜경	코코이비인후과	유정아	영상의학과	전미선	간호국	최호진	신경과
		김준현	압구정안과의원	박환철	심장내과	유창성	진단검사의학과	유성분	본관7층	최홍용	비뇨기과	
50만 원 미만~ 10만 원 이상		김지영	핵의학과	박현겸	외과	윤명희	재활의학과	전선희	회복실	하루미	간호국	
		김지은	감염내과	박희정	진단검사의학과	윤여필	물류팀	전용철	소화기내과	한동수	소화기내과	
		김창렬	소아청소년과	반은주	제3중환자실	윤원구	윤정형외과	전우재	마취통증의학과	한명훈	신경외과	
		김창선	응급의학과	방소영	류마티스내과	은창수	소화기내과	정경희	본관9층	한상웅	신장내과	
	강일규	강일규이비인후과	김충현	신경외과	백근만	운영지원국	이경섭	이경섭정신과의원	정규성	정형외과	한승훈	재활의학과
	강정환	강이비인후과의원	김태완	홍익안과	변순현	의무기록팀	이경식	감염관리팀	정미선	원무팀	한주희	한주희정형외과
	강창남	정형외과	김태형	호흡기내과	서승표	정형외과	이경희	본관10층	정수경	간호국	홍성숙	내시경실
	강흥구	한양정형외과의원	김한준	외과	서우영	정형외과	이광현	정형외과	정우성	새움병원	홍익호	핵의학과
고란주	간호국	김현욱	의료정보팀	박희철	서울정형외과	이규용	신경과	정재윤	소화기내과	황규태	정형외과	
	고성호	신경과	김현조	킴스의원	서정원	영상의학과	이두연	정형외과	정재호	이비인후과	황성우	경영지원실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황의순	진료협력팀	김란	본관5층	김영신	치과	김희나	주사실	박은영	인공신장실	송훈남	내과중환자실
황인자	간호국	김령	영양팀	김영연	심장센터	나소정	수술실	박은형	고객지원팀	신명희	치과
10만 원 미만		김령희	재무팀	김영일	임상연구지원팀	나윤숙	2층내과	박응범	비상계획계	신미숙	진단검사의학과
		김영환	영양팀	김영자	진단검사의학과	나인철	재활의학과	박정현	본관11층	신수지	수술실
강다운	본관9층	김미라	마취후회복관리실	김영진	신경외과	남순영	본관5층	박정우	신경외과	신재철	의무기록팀
강문주	본관11층	김미라	성형외과	김영훈	물류팀	노광규	인사총무팀	박주은	분만실	신정미	영양팀
강민아	진단검사의학과	김미라	영상의학과	김육원	영상의학과	노옥경	제3중환자실	박지경	영양팀	신정은	인공신장실
강석범	핵의학과	김미성	간호국	김은미	신생아중환자실	노옥석	동관7층	박지애	QI팀	신철우	진단검사의학과
강성찬	외과	김미성	마취후회복관리실	김은실	소아청소년과	노창완	영상의학과	박지혜	응급의료센터	신태양	정형외과
강성훈	진단검사의학과	김미성	인공신장실	김은주	응급의료센터	류종백	시설팀(시설)	박진욱	보험심사팀	신헌주	인공신장실
강신창	핵의학과	김미화	고객지원팀	김은지	본관10층	모지은	소화기내과	박진희	인공신장실	신헌민	수술실
강영의	본관6층	김미희	본관7층	김은희	수술실	문미영	이식센터	박춘아	수술실	신희숙	내과계중환자실
강윤성	의무기록팀	김민선	영양팀	김인호	약제팀	문미영	주사실	박현정	피부과	심규진	본관7층
강은미	본관10층	김민아	본관10층	김자윤	해민정신건강의학과	문상희	내과중환자실	박현혜	본관8층	심규형	영상의학과
강지민	마취후회복관리실	김민정	수술실	김재희	영상의학과	문영민	영상의학과	박현화	마취후회복관리실	심요라	보험심사팀
강지원	기획팀	김민정	인공신장실	김정달	진단검사의학과	문재봉	시설팀(시설)	박혜정	건강검진센터	안대웅	교육연구부
강해영	영상의학과	김민정	중앙공급실	김정민	본관10층	문정희	본관9층	방민주	제3중환자실	안명현	병리과
강혜숙	영양팀	김민희	2층내과	김정숙	고객지원팀	문한솔	외과	방성주	대외홍보팀	안미경	영양팀
고희경	2층내과	김백수	동관7층	김정안	본관7층	문희애	본관6층	방지훈	신경외과	안삼순	2층내과
공경숙	신생아중환자실	김병숙	원무팀	김정언	외과	민진	신생아중환자실	배순석	수술실	안석태	영상의학과
공지현	심장센터	김보미	신경외과	김정희	영양팀	민현숙	약제팀	배은희	보험심사팀	안선미	내과중환자실
곽동원	영상의학과	김상미	본관10층	김주희	응급의료센터	박경림	보험심사팀	백운철	병리과	안신영	본관9층
권난희	영양팀	김상훈	약제팀	김준식	진단검사의학과	박경미	비뇨기과	백필선	외과	안유정	내과중환자실
권미화	호흡기내과	김상희	본관11층	김중식	수술실	박경숙	간호국	백형정	약제팀	안은중	의료정보팀
권연희	영양팀	김석현	정신건강의학과	김창금	영양팀	박경희	중앙공급실	백혜연	수술실	안은진	2층내과
권오균	인사총무팀	김선영	2층내과	김철한	재무팀	박근배	보험심사팀	변다솜	본관10층	안이슬	본관10층
권용덕	마취통증의학과	김선영	고객지원팀	김초록	본관5층	박영경	외과	서명진	주사실	안정미	수술실
권유진	응급의료센터	김선주	인공신장실	김초롱	본관6층	박영호	환자이송반	서병갑	영상의학과	안정은	본관11층
권은진	이비인후과	김상애	본관17층	김춘애	영양팀	박미숙	영양팀	서소연	소아청소년과	안정현	이비인후과
권혁천	고객지원팀	김성철	병리과	김태근	병리과	박미순	원무팀	서소연	응급의료센터	안창선	물류팀
권현숙	본관5층	김성훈	영상의학과	김태호	재활의학과	박미옥	교육연구팀	서승희	내과중환자실	안혜옥	본관20층
권혜영	인공신장실	김세정	본관11층	김택순	조혈모세포이식센터	박상혁	영양팀	서승희	본관9층	앙길녀	본관7층
김경수	본관6층	김소란	본관10층	김하연	응급의료센터	박선아	진단검사의학과	서영남	본관8층	앙명화	간호국
김경숙	항암조제실	김소연	인공신장실	김현일	외과	박선영	내과중환자실	서영은	본관5층	앙미영	영양팀
김경실	본관5층	김수연	보험심사팀	김현주	고객지원팀	박선희	마취후회복관리실	서정심		앙수용	세탁실
김경우	진단검사의학과	김숙미	영상의학과	김현진	재활의학과	박성찬	진단검사의학과	서현주	진료협력팀	앙은주	낮병동
김광영	고객지원팀	김순식	노동조합	김현창	물류팀	박소은	영양팀	설명길	의료정보팀	앙정자	원무팀
김규식	비뇨기과	김승희	인공신장실	김현희	2층내과	박수미	신생아중환자실	성경희	동관7층	앙현	간호국
김금례	인공신장실	김아름	본관5층	김형근	진단검사의학과	박수정	수술실	성명순	사회복지팀	앙효선	약제팀
김기라	인사총무팀	김애경	내과중환자실	김형석	약제팀	박순구	안과	성혜윤	본관8층	엄기숙	영양팀
김기석	내시경실	김애경	본관20층	김형주	약제팀	박언희	수술실	손영성	본관9층	엄혜정	수술실
김나영	본관18층	김양선	인공신장실	김혜림	감염관리팀	박예진	본관8층	손화선	대외홍보팀	여미진	본관10층
김다솜	약제팀	김연정	재무팀	김혜원	간호국	박용범	기획팀	송명선	본관10층	여은주	본관6층
김대건	영상의학과	김연주	병동서무	김황룡	진료부	박유정	감염관리팀	송은경	진단검사의학과	오금복	정형외과
김도와	내시경실	김영미	이비인후과	김효준	물류팀	박은수	본관10층	송주영	본관7층	오기향	비뇨기과
김동관	진단검사의학과	김영선	본관5층	김희원	본관5층	박은영	내시경실	송현수	시설팀(시설)	오미혜	정신건강의학과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오연이	영양팀	윤현숙	마취후회복관리실	이에린	내과중환자실	장윤주	약제팀	최선미	인공신장실	현순희	소화기내과
오영숙	고객지원팀	윤현순	고객지원팀	이유미	심장센터	장정아	육아지도실	최선희	진단검사의학과	홍대영	인사총무팀
오유선	본관9층	윤희정	인공신장실	이윤진	응급의료센터	전경신	신생아중환자실	최성은	교육연구팀	홍민영	비뇨기과
오재훈	마취통증의학과	음희재	내시경실	이은경	인사총무팀	전효선	영상의학과	최세연	원무팀	홍숙의	병동서무
오정님	영양팀	이강연	비상계획계	이은명	마취후회복관리실	정경은	본관5층	최소담	영상의학과	홍은미	내과중환자실
오정숙	재활의학과	이경은	영상의학과	이은애	본관11층	정기영	영상의학과	최순애	인공신장실	홍은자	내시경실
오정한	희명병원	이경철	기획팀	이은주	보험심사팀	정대천	원무팀	최승희	본관10층	황미향	영상의학과
오지현	주사실	이경희	인공신장실	이은형	본관6층	정선주	본관7층	최신자	진단검사의학과	황성환	교육연구부
오진영	2층내과	이관석	원무팀	이은희	인공신장실	정선희	인공신장실	최영선	인공신장실	황성희	정형외과
오홍석		이규택	신경과	이정식	보험심사팀	정수정	본관5층	최윤희	신생아중환자실	황영순	본관5층
오화경	수술실	이금란	인공신장실	이정애	병리과	정유정	본관17층	최은영	본관8층	황정선	마취후회복관리실
오화순	응급의료센터	이나리	본관10층	이정은	고객지원팀	정은영	수술실	최재범	원무팀	황준호	의료정보팀
옥상열	홍보팀	이나영	수술실	이정인	당뇨센터	정일웅	의료정보팀	최정연	대외홍보팀	황혜연	본관10층
우순희	수술실	이두리	제3중환자실	이정화	소아청소년과	정임중	응급의료센터	최정훈	2층내과	황희수	영상의학과
우정미	고객지원팀	이두중	핵의학과	이정화	신경과	정재순	마취통증의학과	최종석	영상의학과	가부금 명단은 가나다 순입니다.	
원혜정	부속실	이명숙	병리과	이정화	이비인후과	정정미	본관10층	최종은	보험심사팀		
원홍석	인사총무팀	이명주	약제팀	이정희	본관8층	정지현	응급의료센터	최진실	본관5층		
위영현	약제팀	이미경	보험심사팀	이종열	치과	정현정	진단검사의학과	최창순	동관7층		
유고은	본관10층	이미경	영양팀	이주영	인사총무팀	정혜영	내과중환자실	최현구	본관8층		
유미화	물류팀	이미란	신경외과	이주현	본관6층	정훈	의료정보팀	최현주	진단검사의학과		
유병호	내과중환자실	이미자	본관11층	이주현	중앙공급실	조경숙	인공신장실	최혜용	고객지원팀		
유선길	건강검진센터	이미정	본관10층	이지현	심장센터	조광희	본관9층	최희영	QI팀		
유선정	이비인후과	이미정	인공신장실	이진주	응급의료센터	조구성	영상의학과	표은주	진단검사의학과		
유숙	병리과	이민지	본관5층	이창우	정형외과	조규선	영상의학과	하경애	마취후회복관리실		
유영미	본관7층	이민진	건강관리팀	이하랑	마취후회복관리실	조문형	원무팀	하동근	비뇨기과		
유은희	제3중환자실	이상미	제3중환자실	이현아	본관7층	조은영	영상의학과	하은영	약제팀		
유정안	중앙공급실	이상찬	차량계	이현주	본관7층	조인옥	진단검사의학과	하지윤	원무팀		
유정자	본관7층	이새롬	본관11층	이현주	원목실	조현교	진단검사의학과	한미경	동관7층		
유주량	본관5층	이서윤	본관9층	이현중	영상의학과	조현일	시설팀(시설)	한상운	원무팀		
유지학	인사총무팀	이선영	본관6층	이혜정	수술실	조환영	중앙공급실	한수진	본관10층		
유현영	물류팀	이선화	본관9층	이호남	진료협력팀	주찬미	본관7층	한승희	수술실		
유현주	건강검진센터	이선희	원무팀	이호문	영상의학과	지미경	보험심사팀	한아영	수술실		
유현주	마취후회복관리실	이성모	물류팀	이호용	영상의학과	지은아	산부인과	한정연	성형외과		
윤경주	응급의료센터	이성미	이식센터	임경순	신경외과	지혜정	의료정보팀	한주화	심장센터		
윤규리	본관10층	이소연	응급의료센터	임다현	본관10층	진수희	내시경실	한현남	영양팀		
윤미영	본관8층	이수연	고객지원팀	임상혁	영상의학과	진춘희	영양팀	한현수	의료정보팀		
윤선미	영양팀	이수진	수술실	임연희	진단검사의학과	천경희	의료정보팀	한현정	보험심사팀		
윤선애	본관6층	이숙	고객지원팀	임은실	응급의료센터	천다혜	본관9층	함명자	보험심사팀		
윤선희	영양팀	이숙희	마취후회복관리실	임은자	이비인후과	천영복	물류팀(의공)	함수미	응급의료센터		
윤아름	본관10층	이순자	본관5층	임인자	수술실	천은미	소아청소년과	함연순	외과		
윤은정	신생아중환자실	이슬아	본관11층	임인현	병동서무	천은선	외과	허성미	본관8층		
윤인숙	본관10층	이승호	영상의학과	임정연	고객지원팀	최규호	마취통증의학과	허정현	심장센터		
윤정아	외과	이연우	신생아중환자실	임주아	정형외과	최다울	신생아실	허지선	본관7층		
윤정희	약제팀	이연주	정형외과	임지영	영양팀	최문정	본관5층	허지영	병동서무		
윤지선	본관6층	이영미	신생아중환자실	임화영	비뇨기과	최미옥	내과중환자실	허태영	진단검사의학과		
윤향순	진단검사의학과	이영주	2층내과	장선정	신생아중환자실	최민희	마취후회복관리실	허효숙	소화기내과		

Hanyang Calendar

5 May

12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암환자가 주치의에게
물어보고 요구해야 할 것들
혈액종양내과 원영웅 교수
오후 3시
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12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한양밴드보컬리스트 - 김선영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17 Wed

**한양대학교병원
성동구민을 위한 의료봉사**
오후 2시~4시 30분
성동노인종합복지관

6 June

02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가슴이 아파요. 협심증,
심근경색의 진단과 치료
심장내과 신경훈 교수
오후 3시
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02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함창 - 예다미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05 Mon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내밀음악회-피아노 트리오와
팬플루트 연주
오후 7시
본관 1층

09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위드 - 정애화, 플루트 앙상블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13 Tue

**한양대학교병원
성동구민을 위한 의료봉사**
오후 2시~4시 30분
옥수종합사회복지관

23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클래식기타연주 - 유원호 외 2인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30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중창 - 에벤에셀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전화예약**: 02 - 2290 - 8114 ■ **응급실**: 02 - 2290 - 8283 ■ **진료의뢰센터**: 02 - 2290 - 9717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2290-8303	최호순	수, 금, 토(1주)	월	간질환, 담낭, 담도, 췌장
	윤병철	월, 목	수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이오영	월, 수, 토(3주)	화,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전대원	월~목	수, 금	간질환
	이항락	금, 토(4주)	월, 화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이강녕	화, 토(2주)	목, 금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이지영	월, 수	금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이혜영	화, 목	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김은진	금, 토	월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김재하		화, 목, 금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심장내과 2290-8700	김경수	화, 목, 토(2주)	화, 금	허혈성심장질환, 심혈관중재술, 심장줄기세포치료,협심증, 고혈압
	신진호	월, 수, 금, 토(3주)	수	고혈압, 심부전, 심혈관중재시술
	임영효	수, 금, 토(4주)	월, 수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심부전, 말초동맥질환
	박진규	월, 화, 목, 토(1주)	목	부정맥, 실신, 급사, 심장전기생리검사 및 전극도자절제술, 심박동기
	장기설			일반 심장내과질환
신장내과 2290-8300	김근호	월, 수(1주), 금, 토(3,4주)	화, 목	전해질장애, 고혈압, 신부전, 부증, 복막투석
	이창화	화, 수, 금, 토(1,2주)	월, 목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내분비내사 내과 2290-8300	박준성	월, 목, 토(3주)	화, 수, 금	일반 신장내과질환
	안유현	월~목, 토(2주)	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뇌하수체
	최중환	월, 화, 수, 금, 토(1주)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김동선	월, 수, 목, 토(4주)	월, 화	당뇨병, 뇌하수체, 갑상선
	박정환	화, 토(3주)	수, 목, 금	일반 내분비내사질환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2290-8302	윤호주	월, 수, 토(4주)	수, 목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손장원	월, 화, 목, 금, 토(2주)		폐결핵, 폐암, 폐렴
	김상현	화, 금, 토(1주)	월, 화	천식, 알레르기, 면역성폐질환
	박동원	수	월, 화, 목	호흡기알레르기질환
	구건우	목, 토(3주)	수, 금	일반 호흡기질환
중환자실	내과계	월~금	월, 화, 목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외과계	월~금	월~금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혈액종양내과 2290-8300	이영열	월, 수	목, 금	만성백혈병, 골수증식질환, 림프종, 골수종, 기타혈액질환
	박병배	화, 목	월, 금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두경부종양, 뇌종양, 비호생식기계종양, 육종
	엄지은	금	월, 화, 수	급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조혈모세포이식
감염내과	배현주	목	월, 목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클리닉
소아청소년과 2290-8380 제대혈클리닉▲	설인준	화, 목, 토(3주)	월, 수	소아신경 및 근육질환, 소아간질
	오성희	목, 금	월, 화	소아감염질환
	김남수	월, 수, 금(구리), 토(2주)	목	소아심장질환
	이영호	월(구리),토(4주)	화, 목	조혈모세포이식, 소아혈액, 소아암
	김용주	월, 수, 토(1주)	수, 목	소아소화기영양
	박현경	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이현주		금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김지혜	목	화	소아내분비
	김종덕	월, 수, 토(4주)	금	호흡기알레르기
육아지도실 2290-8871	박현경	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이현주	수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신생아 중환자실	박현경	수, 목, 금	월~금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이현주	월, 화, 목, 금	월~목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http://m.hyumc.com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과 2290-8367/ 8368 세포치료센터 &클리닉▲ 2290-9377 서관 7층	김주한	월, 수	월, 수	간질, 실신, 수면장애, 하지불안증후군
	김승현	월, 금 (루게릭)▲, 목	월(루게릭)▲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치매 및 루게릭병
	김희태	화, 수, 목▲	화, 목 (파킨슨)▲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손떨림, 뇌졸중
	김현영	수▲, 금, 토(2주)	화, 수▲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김희진	화▲, 금, 토(3주)	화▲, 금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 뇌졸중, 뇌수막염
	김영서	월, 화, 토(1주)	월, 목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오기욱	월▲, 금▲, 토(4주)	월▲, 수	말초신경계질환, 근육병질환, 두통
	박진석	화, 토(2,4주)	목, 금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일반신경과질환
	조원호	수, 토(1, 3주)	금	일반 신경과질환
정신건강의학과 2290-8419	안동현	수, 토(4주)	월, 수, 목	소아정신의학, 발달장애, 과잉행동증후군
	김석현	화, 금, 토(2주)	화, 금	정신약물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노성원	월, 목, 토(3주)	월	중독장애, 노인정신장애, 우울증, 조현병
	민이란	월, 수	금	소아정신의학
피부과 2290-8434	김강률	수	화, 목	소아정신의학
	노영석	월, 화, 목, 토(2주)	월	아토피 피부병, 여드름, 탈모, 건선
외과 2290-8444	고주연		해 외 연 수	
	김정은	수, 금, 토(1,3, 5주)	화, 목, 금	피부마용, 레이저, 색소질환, 건선, 백반증, 대상포진, 무좀 및 진균성 질환, 피부암
	권성준	수, 금		위, 십이지장질환, 외과종양학
	권오정	월	수	이식, 혈관질환
	이경근	화, 금	목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최동호	수, 목, 토(1주)	월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이강홍	화, 목, 토(2주)	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정민성	목	월, 목 (맘모톰)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종양, 갑상선암, 내분비외과, 갑상선 로봇내시경수술
	하태경	화, 토(4주)	목	복강경/로봇위암수술, 고도비만대사수술, 복강경탈장수술
	안병규	월, 토(3주)	수, 금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일반 외과질환, 복강경탈장수술
소아외과	윤태인	금	화, 수(맘모톰)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종양, 갑상선암
	하태경	월		복강경/소아외과수술, 선천성질환, 탈장수술
흉부외과 2290-8461	김영학	화	화, 금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장이식
	정원상	화, 목	화, 목	폐 및 식도외과, 종격동, 흉강경수술, 폐이식
	김 혁		월, 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흉강경수술, 대동맥수술
	김혜선	월, 수, 금		일반 흉부(폐, 종격동 및 식도 질환, 흉강경수술)
정형외과 2290-8473	이광현	월, 수, 금		수부외과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최충혁	월, 수	수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성일훈	화, 목, 토(1주)	화	족부클리닉, 당뇨발, 변형교정, 스포츠의학
	강창남	월	월, 수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이봉근		해 외 연 수	
	김이석	목, 금	화	고관절클리닉, 외상학,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황규태	화, 목		고관절, 골절, 외상(스포츠손상), 근골격계 다발성 손상
	이진규	화	목, 토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조영훈	금	수, 금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2017년 5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정형외과	김영호	월, 수, 금	수	인공관절 치환술, 골절(고관절 및 슬관절)
	박예수	수, 금, 토(4주)	월	퇴행성 및 골다공성 척추질환, 척추기형
	박기철	화, 목, 토(2주)	금	사지골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
	이정일	월, 토(3주)	화, 금	수부 및 손목관절, 미세재건외과, 말초신경마비
	양재혁	목, 토(1주)	화, 수	슬관절(관절경, 인공관절), 스포츠 손상
	송중훈	화	월, 목	견관절, 주관절, 외상
산부인과	류기영	월, 목, 토(3주)	화, 수	조기진통 및 조산, 고위험임신, 조음파, 태아 이상 의 진단 및 치료, 일반부인과(복강경수술)
	배중운	화, 토(2주)	목, 금	부인종양, 최소침습수술, 복강경수술, 산모
	정언석	수, 금, 토(1,4주)	월	단일교범, 복강경수술(난소육, 자궁육), 부인암, 산모, 고위험산모
성형외과	최승석	월, 금	수	말초신경 및 수부재건, 유방성형, 미용성형
	이장현	화, 목, 토(2,4주)	화, 목	안면기형 및 재건, 피부암, 미세재건수술, 침샘종양, 미용성형
	장정우	수, 토(1,3주)	월, 금	안면외상, 욕창재건, 피부종괴, 미용성형
	남영수	월, 수	목	대장항문질환, 유방암, 갑상선질환
외과	이흥기	월, 수, 금		헬관(대동맥, 경동맥, 당뇨발), 이식, 간담체질환
	박현겸	목	화, 금	간담체질환, 복강경수술
	김한준	화, 금	목	간담체질환, 복강경수술, 탈장
	김만규	화, 금, 토(1주)	수	상부 위장관 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최민영	목, 토(2주)	월, 화	유방, 갑상선질환
	윤정아	목, 토(3주)	월, 화	대장항문질환
	김현일		수, 금	상부 위장관 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권준교	화, 토(4주)	월, 금	혈관, 이식
	조희운	화, 목	목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성민철	수, 금	월, 수	녹내장, 백내장
안과	강민호	월, 토(2,4주)	화, 금	외안부질환, 굴절, 백내장
	임한웅	토(1,3주)	화	안성형, 사시, 소아안과
	신용운	월, 금, 토(2주)	수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이민지	목, 토(4주)	월, 금	사시, 소아안과, 성형안과
피부과	유희준	월, 화, 금	화, 목	무좀 및 조갑백선, 피부부러르기질환
	김정수	수, 목, 토	월, 수	피부미용, 피부외과, 소아피부질환
	서현민	화	수, 금	피부미용, 일반피부과질환
이비인후과	이승환	월, 수	목	만성중이염, 난청, 이명, 어지럼증, 인공와우이식
	정진혁	화, 금	수	부비동염, 비종격질환, 코막힘,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코성형
	지용배	목, 토(1주)	월, 화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정재호	금, 토(3주)	월, 수, 금	어지럼증, 난청, 이명, 중이염
	변하영	월, 수, 목		이명, 어지럼증, 소아 및 일반이비인후과질환
	박우성	화, 토(2,4주)	화, 목, 금	비부비동염, 비종격 만곡증, 알레르기 비염, 일반 이비인후과 질환
비뇨기과	최홍용	화, 목	목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요실금, 비뇨기종양
	문홍상	수, 토(2주)	월, 금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이승욱	월, 금, 토(1주)	화	복강경수술, 비뇨기종양, 남성과학
	김규식	월, 토(3,4주)	수	요로결석, 소아비뇨기질환
재활의학과 만성통증 맞춤클리닉▲	장성호	월, 금	월, 수	근골격계재활, 스포츠의학, 노인의학
	한승훈	화, 목	화, 목, 금	소아재활클리닉, 근골격계재활 (요통, 오십견, 관절염), 스포츠 손상, 뇌신경 재활
치과	박원희	월~목, 토(1,3주)	수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턱관절질환
	김윤영	화, 금, 토(2,4주)	월, 화, 목, 금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통증클리닉	심재환	월, 수, 금	월, 금	요통, 관절통, 만성통증, 암성통증, 통증질환
핵의학과	김지영		화	종양핵의학
직업환경학과	장태원		화	직업성질환,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 대표전화: 1644 - 9118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손주현	화	월, 목	간질환(간염,간경변증,간암)
	한동수	월, 목	화	소장, 대장질환(염증성 장질환, 대장암, 기능성 장질환)
	전용철	월, 금	수	소화기, 위장관질환
	은창수	수, 금	월	소화기, 위장관질환
	유교상	화, 수, 토(2,4주)	목	담도, 췌장질환, 소화기질환
	박찬혁	목, 토(1,3주)	수, 금	소화기, 위장관질환, 식도암, 위암
	정재운	수, 목, 토(2,4주)	화, 금	간질환(간염, 간경변증, 간암), 소화기질환
	김순길	월, 화, 목, 금	목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심부전
심장내과	박한철	수, 목, 토(3주)	화	고혈압, 부정맥질환
	신정훈	월, 토(2,4주)	화, 수, 목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심부전
	이용구	수	월, 수, 금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신장내과	한상웅	월, 목, 금	화, 수	만성콩팥병, 당뇨병콩팥병, 사구체신염, 고혈압, 투석요법
	이주학	화, 수, 토(1,2주)	월, 목	특발성 부종, 만성콩팥병, 고혈압, 전해질이상질환
내분비대사내과	이창범	화, 금, 토(1,2주)	월, 수	당뇨병, 갑상선질환, 비만증
	유성훈	월, 금, 토(3,4주)	화, 금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일반내분비질환
류마티스내과 만성통증 맞춤클리닉▲	이혜순	월, 수▲, 토(3주)	화▲, 목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만성통증
	방소영	화▲, 목, 금, 토(2,4주)	수▲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만성통증
	안수민	화, 목, 토(1주)	월, 금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만성통증
호흡기내과	김태형	월, 수, 목, 토(2주)	화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폐암, 중환자관리
	문지용	화, 금, 토(1,3주)	월, 목	만성기침,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결핵, 폐암
	박태선		수	중환자치료, 호흡부전, 폐렴, 기관지내시경
	박연경		금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혈액종양내과	최정혜	화, 목, 토(2,4주)	월, 수, 금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형암
	원영웅	월, 수, 금, 토(1,3주)	화, 목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형암
감염내과	김지은	목, 토(2,4주)	월, 화,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해외여행자, 예방접종
소아청소년과	김창렬	화, 수, 금	화	신생아학, 영아신경발달 및 질환
	오재원	수, 금	월, 수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문진화	월, 화, 목, 토(1주)	화, 목	소아신경질환
	이영호	월		소아혈액종양
	김남수		금	소아심장질환
	김지혜	수, 토(2주)	월, 수, 목	소아내분비질환, 성장, 의학유전질환
	최영진	월, 목, 토(3주)	월, 수, 금	소아호흡기질환
	강하나	토(4주)	금	신생아
신경과	이영주	화, 금	화, 목, 금	뇌종증, 치매, 파킨슨병, 어지러움증, 하지불안증후군
	이규용	월, 수, 금, 토(2,4주)	월, 수	뇌종증, 두통, 말초신경병증, 하지불안증후군, 손저림
	고성호	월, 수, 목	월, 수	뇌종증, 신경퇴행성질환(치매, 파킨슨병)
	최호진	화, 목, 토(1, 3주)	월, 목	치매, 뇌종증, 두통
정신건강 의학과	박용천	월, 화 (보건소치매), 목	월, 목	문화정신의학, 정신분석, 정신치료
	김대호	화, 목, 토(1주)	화, 수 (클리닉), 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최준호	월, 수, 금, 토(2,4주)	수	조현병, 조기정신병, 조울증, 우울증, 신경영양학
	김충현	월, 금, 토(2주)	화, 수	뇌종양, 뇌종증, 척추 및 말초신경질환
	김재민	수, 목, 토(1주)	월	뇌혈관질환, 두개저부비농양 및 뇌동맥류, 뇌종양
	정진환	월, 토(4주)	화, 목	두부외상,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수술
신경외과	류제일	화, 수	금	척추질환(최소침습척추수술), 척추종양, 두부외상
	한명훈	목, 금, 토(3주)	월	뇌종양, 뇌저위기능, 두부외상
	나민균		목	뇌종양, 두부외상, 일반신경외과
	원유덕		수, 금	뇌혈관질환, 신경계 손상
흉부외과	노선균	수, 금	화, 금	심장질환(관상동맥, 심장판막질환, 심장종양), 대동맥 및 혈관질환(동맥맥류, 말초동맥질환, 하지정맥류 등), 흉부외상, 기흉
	남승혁	월	월, 수, 목	흉강경수술, 폐암, 식도암, 양성폐질환, 기흉, 다한증, 종격동질환, 흉부외상, 흉곽기형

* 2017년 5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핵의학과	최윤영		수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이수진	토(1,3주)	월	일반진료
치과	이영수	목, 금	월, 화, 목	임플란트, 완전/부분틀니, 심미보철
	황경균	월, 화, 목	월, 화, 목	턱얼굴성형수술(기형),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침샘질환(타액선), 코골이장치
	박창주	화, 목, 금	화, 목	턱알골 성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과진행법
	한지영	월~금	화, 금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김주형	월, 화, 목	월, 화, 목, 금	심미교정, 설측교정, 급속교정, 수술교정
	심광섭	화, 금	수	턱알골외상,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이은혜	월, 수, 금	월, 수, 금	보존치료, 심미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미백
	박훈기	월	목	
맞춤형 비만치료센터	황환식	수	금	
	박계영		월, 수	
	하태경		화	
가정의학과	박훈기	수, 금, 토(2주)	월, 목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화, 목, 토(4주)	금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박계영		화, 수	건강증진의학
직업환경의학과	송재철	월~금, 토(3주, 격달)	월, 수	환경 및 산업의학, 직업성 천식
	이수진	화, 금, 토(3주, 격달)		근골격계질환, 새집증후군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 1층 : 02-2290-9216, 9217, 9226

류마티스내과 2290-9216	유대현	월, 화, 목, 토(2주)	화, 수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성인형스틸병, 근염
	배상철	월, 수, 목	월, 목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전재범	화, 수, 금, 토(4주)	목, 금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경피증, 통풍
	김태환	화, 목	월, 화, 목	강직성척추염, 퇴행성 관절염
	성윤경	월, 화, 수, 금, 토(3주)	수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골다공증, 쇼그렌병
	최찬범	월, 수, 금, 토(2주)	수, 금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병, 베체트병, 건선관절염, 혈관염
	조수경	월, 수~금, 토(1주)	월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베체트병
	김 담	화, 금, 토(2, 4주)	화, 수, 금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랜증후군
	남승완	수, 토(3주)	월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병
	권혁희	수, 토(4주)	목	일반 류마티스내과질환
	안기영	목, 토(1주)	금	일반 류마티스내과질환
	김민정	월	수	일반 류마티스내과질환
	김형영	금, 토(2주)	화	일반 류마티스내과질환
	박시복	수, 금, 토(4주)	월, 수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재활
	이규훈	월, 화, 목, 토(2주)	화, 목	족부재활, 관절재활, 스포츠의학
	심재철	월, 수, 목, 금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최충혁		월	슬관절클리닉(관절경, 인공슬관절치환술), 류마티스관절염
	이봉근		해 외 연 수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사관 3층 : 02-2290-9550, 9551, 9552

종합검진 2290-9550	윤호주	화	월, 화, 목	폐암, 폐결핵, 폐렴, 간질성폐결핵
	박훈기		화, 수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목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박계영	월~토(2,4주)	목, 금	가정의학
	김정현	월, 화, 목, 금		Global healthcare, 심장내과
여행자 클리닉	배현주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 클리닉
성형외과 국제진료	김연환	화, 금	목	미세재건수술(사지재건), 안면골절 및 외상, 미용성형(코), 일반성형, 피부종양, 피부부하교정, 욕창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2290-8491	고 용	월, 수	월	뇌혈관질환, 미세극소침습뇌수술, 내시경뇌하수체 수술, 뇌신경질환
	김영수	화	목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증성질환, 뇌종양
	백광흠	월, 수	금	디스크, 요통, 척추질환, 내시경디스크수술, 척추종양
	이형중	목, 토(4주)	화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손상, 뇌졸중(중풍), 두통, 퇴행성 신경손상
	전형준	금, 토(3주)	수	요추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팔저림증, 신경손상, 통증성질환, 척추종양
	최규선	금, 토	수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손상, 뇌졸중(중풍), 두통, 퇴행성 신경손상
성형외과 2290-8560	안희창	수, 금	월	유방재건 및 성형, 선천성 얼굴기형, 레이노드병, 손재건
	김연환	화, 목, 토(2, 4주)	화, 목	하지재건(미세수술), 당뇨발, 안면외상, 미용성형(코), 욕창
	윤승기	토(1주)	수, 금	일반 성형외과질환
	임수연	월, 수, 토(3주)		일반 성형외과질환
산부인과 2290-8400	최중섭	월, 수	수, 금	일반 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호정규	월, 화, 목, 토(1,3주)	화	일반 산부인과, 고위험임신, 조산,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원우	화, 목, 토(2,4주)	화, 목	난소암, 자궁암, 일반 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 수술
	배재만		해 외 연 수	
	엄정민	금, 토(1,3주)	월, 수	일반 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은현	월, 수	목, 금	일반 산부인과질환
안과 2290-8570	엄기방	월, 수	금	녹내장, 백내장
	이병로	화, 목	목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임한웅	금, 토(4주)	월, 수	소아안과, 사시, 안성형, 신경안과
	안성준	금, 토(1,3주)	화, 수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막속이 망막증
	김유정	월, 토(2,5주)	화, 목	외안부, 굴절교정, 백내장
이비인후과 2290-8580	박철원	화, 금, 토(3주)	화	만성중이염, 난청, 어지러움증, 이명, 안면신경마비
	김경래	목, 토(2주)	월, 목	부비동염, 알레르기성비염, 부비동내시경
	태 경	월, 수	수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로봇갑상선수술, 경부종물, 음성장애
	조석현	월, 화, 토(1주)	화, 금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부비동내시경,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수면무호흡
	송창면	수, 목, 토(4주)	월, 목	후두음성, 인후두역류, 소아이비인후과, PITA편도수술, 갑상선암, 두경부암
	임종현	금		일반 이비인후과,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난청, 어지럼증, 이명
비뇨기과 2290-8593	박해영	수, 금	월, 수	신장이식 및 남성과학 신결석, 전립선질환, 비뇨기질환
	김용태	화, 목	화, 수	배뇨장애, 요실금, 전립선질환, 비뇨기종양, 신장질환, 신결석
	박성열	월, 수, 목	월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신결석, 소아비뇨기 질환
	조정기	화, 금	목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윤영은	월	화, 금	결석, 혈뇨, 로봇수술, 신장암, 신장이식, 최소침습수술, 항암치료
	정재훈	토	목, 금	일반 비뇨기계질환
재활의학과 2290-9350	김미정	월, 수, 금, 토(1주)	월, 수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방사선종양학과 2290-8614	전하정	월, 수, 목	화, 수, 목	방사선종양학
	박혜진	월, 화, 목, 금	월, 화	방사선종양학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로 환자와 더욱 가까워지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 개소한 한양대학교병원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환자와 환자 가족 여러분의 신뢰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첫 발자국을 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도 함께 발맞추어 나가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